

제429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10 호
(정기회)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5년11월11일(화)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상정된 안건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1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1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14시33분 개의)

○위원장 김교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과 이종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장은 예정된 국외 출장 일정을 사유로 불참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14시34분)

○위원장 김교흥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휘영 장관과 허민 청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휘영 문체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존경하는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체육관광부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을 실제 수입·지출 규모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1702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7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수입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6개 기금 수입 총 4조 107억 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157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 지출재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총 재정 규모는 7조 7962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729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6514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885억 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012억 원, 합계 4조 2411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469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3조 5551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259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K-컬처의 핵심인 콘텐츠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작 지원과 인력양성 등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K-콘텐츠 펀드를 확대하고 문화기술 연구개발 투자도 늘려서 산업의 혁신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그리고 K-컬처의 해외 확산을 위해 해외 주요 거점 도시에 K-컬처 유관기관을 집적화한 글로벌 K-컬처 허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예술 창작·복지 강화와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예술인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복지를 두텁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득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포용적 문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금을 인상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스포츠·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손쉽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체력인증센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어르신 대상 스포츠 프로그램 등 생활체육 활동 지원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체육을 빈틈없이 육성하기 위해 예비 국가대표 양성과 은퇴선수 일자리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관광 분야는 K-지역관광 선도권역 프로젝트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지역경제와 내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로 뻗어 나가고 있는 K-컬처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육성도 강화합니다. 이에 더해 국민이 마음껏 여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 휴가 및 지역관광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K-콘텐츠산업 육성 등을 통해 K-컬처 시대 개막을 가속화하고 국민 모두가 문화·체육·관광으로 행복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K-컬처가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그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가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민 국가유산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존경하는 김교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항상 국가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7쪽입니다.

우리 청은 내년도 예산의 기본방향으로 국민 중심의 국가유산 정책을 통해서 문화강국의 든든한 뿌리인 국가유산의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의 중점 투자 방향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전승을 통해서 국가브랜드를 강화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비 국가유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유산 분야별 보존·활용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K-컬처 원천인 국가유산의 세계화로 빅5 문화강국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K-헤리티지를 기반으로 국제협력을 선도하고 위상을 강화하여 국가유산 콘텐츠를 글로벌 브랜드화하여 우리 유산의 가치와 매력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삶과 조화롭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국가유산 보호·활용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색있는 국가유산을 관광자원화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국가유산과 주변

정비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국가유산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 및 기금수입계획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23억 원이 감액된 5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수입안은 복권기금 전입금 증액 등으로 금년 대비 336억 원 증액된 20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계획안 개요입니다.

2026년도 총지출 규모는 1조 4624억 원으로 금년 예산 1조 3874억 원 대비 75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96억 원 증액된 1조 2539억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140억 원이 증액된 436억 원, 국가유산보호기금은 214억 원이 증액된 16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 사업의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8쪽입니다.

국가유산 활용 활성화 사업,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등 유산정책 분야는 398억 원이 증액된 248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21쪽입니다.

국가유산 보수정비, 국가유산 보존기반 구축, 문화유산 분야는 201억 원 증액된 61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쪽부터 23쪽입니다.

자연유산 분야는 14억 원이 증액된 109억 원, 무형유산 분야는 203억 원이 증액된 746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쪽부터 29쪽입니다.

교육·연구·전시 분야는 55억 원이 감액된 689억 원, 궁능원 관리 분야는 169억 원이 감액된 109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이 이관돼서 43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쪽, 국가유산보호기금 중 주요 증액 내역은 국가유산 긴급보수, 재난방지 등 안전관리 강화 사업에 132억 원이 증액된 61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국가유산청이 내년에 추진할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천우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및 국가유산청소관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 게임, 불법 사행산업 및 저작권 침해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범죄수익의 환수와 동 분야 재원으로 우선 사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재원 확충이 필요합니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안 규모는 9.6조 원이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입니다. 국내 콘텐츠산업의 연매출은 2024년 156조 원인 바 이를 두 배로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도 두 배로 증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재정 확보 목표로 정부 총지출의 2%를 설정하고 있으나 이 금액이 얼마인지 한 번에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목표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한 번에 보고 알 수 있어야 하므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재정 확보 목표로는 정부 총지출의 2% 보다는 20조 원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불법 게임, 불법 사행산업,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불법 시장 규모는 약 11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도 범죄수익 보전금액은 총 1조 2684억 원이며 이 중 불법 사행산업 관련 보전금액은 49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칭 문화체육관광 분야 범죄수익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환수된 범죄수익은 몰추·추징 후 정부 일반회계에 세입 처리하되 그중 일정 규모 약 10조 원 이상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관련 사업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K-컬처 주도 인공지능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한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 개막을 목표로 2026년도 예산안에 인공지능 관련 사업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018억 원이 증액된 2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AI 관련 예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정부는 소버린AI 등 하드웨어 기반 측면의 AI 3대 강국 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콘텐츠 중심의 AI 전략을 추진한다면 한국은 중국을 추월하고 AI 2강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기술력은 높지만 콘텐츠·창의산업 기반이 취약한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K-콘텐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화 분야 AI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반 투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등 9개 사업 364억 원이 정부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 하였습니다.

다음, 인공지능 연결 시대에는 예술·기술 연결 역량을 갖춘 창의인재 양성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중심으로 디지털혁신(AI+예술)

석박사 과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소버린 AI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학습데이터가 필수적이며 그 핵심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생산되는 고유의 언어·예술·콘텐츠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AI 학습 데이터구축 예산은 25년 추정 기준 50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4쪽입니다. 국악·전통문양·한복·관광 등 한국 고유문화 관련 데이터는 민간 수요가 높음에도 정제·가공이 미흡하여 활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단계에서 문화 분야 AI 대전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는데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는 AI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54조는 국회에 국가 예산의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업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총액으로 편성한 공모사업은 국회가 예산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된 후 행정부가 결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문화 분야의 기본원칙인 팔길이 원칙 실현을 위한 보조금의 출연금으로의 전환 검토 필요성입니다.

문화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같은 원칙을 팔길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5쪽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의 많은 사업이 보조금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팔길이 원칙과 상반되는 사업 수행 방식입니다. 보조금은 법에 의거 매년 정산을 하고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산 절차에 행정력이 상당 부분 투입되어 창의 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만들고 이러한 구조는 K-컬처 300조 시대를 실현하는 데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K-콘텐츠 300조 시대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행처럼 연차별 공모·정산 중심의 보조금 체계만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대형 프로젝트나 장기투자형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국립발레단 등 8개 국립예술단체는 보조금 체계에 묶여 세부사업별 예산편성과 사후정산 의무를 반복함으로써 공연 제작·연습 일정이 행정 절차에 종속되고 중장기 작품 개발이나 국제협력 사업 추진의 자율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있어도 이를 목적사업을 위해 재투자할 수 없습니다.

출연금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출연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관 운영 출연금의 결산잉여금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은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치면 당해 연도 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기관의 예산집행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이나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사업비 등으로 재사용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법적 근

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국회의 재정 의도에 상반되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지방이양사업과 보조금법 시행령상의 제도개선 필요성입니다.

지방이양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공립 미술관·박물관,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문화예술 교육, 체육진흥시설, 관광자원 개발, 지역문화 행사 지원 등 지역에서 인기 있는 대다수의 사업들이 그 대상이 되어 기존 국비와 지방비를 5 대 5로 하던 것이 국비 5가 사라져서 지역에서는 큰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K-컬처 300조 시대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당시 기획재정부는 재원 중립화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늘린 만큼 지방교부세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원 행안위에서는 지방소비세 도입 취지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감액 없이 지방소비세분만큼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동재원만큼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여 재원 상승 효과를 상쇄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초기 지방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에 포괄보조금 4조 원이 도입되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목적지정보조금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목적미지정 포괄보조금 중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효과(GRDP)가 목적미지정 포괄보조금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균특에 대규모 포괄보조금을 도입한 취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것이 국회의 예산편성 의도이기도 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지방이양사업을 확대하여 균특의 재정 상승 효과를 상쇄시켰습니다. 또한 포괄보조금임에도 세부사업을 기존과 같이 존치하고 있어서 포괄보조금 도입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이양사업에는 아예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54조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어디에 얼마를 계상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헌법은 이를 국회의원들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 의한 보조금법 시행령은 특정 사업별로 보조율을 정할뿐만 아니라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안을 헌법과는 다르게 행정부가 확정하는 것이 되는 바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폐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단말기의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교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에 대해서는 공직자 통합메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인력 및 환경 확보를 위한 운영비 산정 방식 현실화 필요성 등 총 15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이중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자 통합메일 위탁운영비 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직자 통합메일 시스템이 올해 초 핵심 정보시스템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스템 보안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컨설팅, 스팸 차단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7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직자 통합메일 시스템이 국민의 경제·사회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와 파급도가 높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이 핵심 정보시스템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수한 인력과 환경의 차질없는 확보를 위하여 운영비 산정방식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총 2150억 200만 원의 기금이 체육분야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이 제각각 다른 기준에 의해 보조율이 정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유사한 유형의 보조사업들도 그 지원율이 다 상이하며 정률 지원이 아닌 정액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도 상당수 존재하므로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 사업에 대한 보조율 기준을 법에 명시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예산편성 관련 사항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사업은 내역사업인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인식개선 및 홍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관리 등의 추진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7억 7700만 원 감액된 268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운영사업은 현재 945명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고용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2026년도 기준 850명에 해당하는 인건비만 편성되어 있어 약 100명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한 적정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넷째, 지역사랑 휴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26년도에 총 65억 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및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 지출금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광객이 환급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해당 상품권의 불법 유통·환전이나 양도, 부정 사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조달 현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파크 안전관리 교육 강화 필요성 관련 사항입니다.

유원시설 안전관리 사업 계획액은 전년 대비 2억 500만 원 감액된 10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안전관리 교육, 기술 지원, 산업통계 기초조사 등 모든 항목 계획

액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안전관리 교육은 테마파크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보다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 안전관리 실태점검 계획액까지 일괄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최소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액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단말기의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교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김승수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위원장 김교흥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난 6일 정부가, 그러니까 국가유산청 또 문체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세종상가 지구 개발과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체부장관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갑자기 7일 날 종묘를 방문해 가지고 기자회견 했고 또 바로 뒤이어 지난 10일에는 김민석 총리가 종묘를 방문해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석연치 않아서 제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경위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는 들어왔습니다만 일부는 굉장히 부실한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송이기 때문에 문체부장관이 피고 측을 대표해서 이렇게 이름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이 여러 가지 정부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체부장관이 사전의 어떤 공문 협조 요청도 없이 당일 날 요청을 해서 국가유산청장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했고 뒤이어서는 총리까지 나서 가지고 이렇게 기자회견 한 것이 실질적으로 종묘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이런 의도보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관련 경위에 대해서 애초 문체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과정에서 일련의 공문이라든지 협조요청 누가 제안했는지 또 기자회견문은 누가 작성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일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그뒤에 10일에 또 참석을 했었는데 이때 국가유산청장 또 문체부의 실장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참석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제안으로 또 참석한 관계 부처에서는 어떤 경위를 통해 가지고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들어온 자료는 전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종묘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아주 추상적인 답변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리가 참석하게 된 경위 또 그 과정에서 총리실, 문체부, 국가유산청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사이에 참석과 관련된 어떤 협조공문이나 전화, 문자 이런 요구들이 왔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김승수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 문체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거기에 대해 즉각적으로 답변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러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경기 고양시병의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이기현입니다.

장관님, 청장님, 김승수 위원님 질의 주셨던 대로 종묘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이기현 위원** 종묘는 단순히 문화재가 아닙니다. 600년 조선왕조의 정체성과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국가 품격의 상징이 되는 곳입니다. 두 분 모두 다 그 무게를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일산이라는 곳이 이미 신도시가 아닌 오래된 신도시가 되어서 재건축·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과 보호의 싸움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도 생각이 같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도시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유산 보존의 마지막 선이 어떻게 흔들리냐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유산 보존의 마지노선을 지켰는지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국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가고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운4지구 계획안은 원래 당시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2009년도부터 수차례 협의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높이를 71.9m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청장님, 맞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10월 30일 당초 합의된 높이의 2배에 달하는 최고 145m까지 허용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일방적으로 고시했습니다.

청장님, 유산청과 서울시가 재협의를 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고시 이후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기현 위원**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했나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안 했습니다.

○**이기현 위원** 안 했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이기현 위원 청장님, 유산청과 재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유네스코가 권고하고 있는 세계유산법에도 의무화되어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도 하지 않은채 서울시가 단독으로 계획을 변경 고시한 행위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렇지요? 아무리 서울시가 도시계획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계문화유산 종묘의 경관과 조망은 국가의 책임하에서 보호해야 될 영역입니다. 유네스코가 보존 상태가 현저히 나빠졌다고 판단하면 종묘는 세계유산 등재 취소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PPT 하나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시는 내용들인데요.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계곡입니다. 저 계곡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었는데 저 앞에 4차선짜리 다리 하나가 신설되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영국의 리버풀입니다. 오래된 항구이고 영국 개항기에 세계 해양을 제패하던 시절에 리버풀의 항구가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어서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었지만, 그리고 비틀즈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음악 팬들이 리버풀을 사랑하고 세계문화유산 리버풀을 관광지로서 즐겨왔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대로리버풀이 축구장을 짓고 저렇게 20층 정도의 고층건물을 지으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탈락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이기현 위원 종묘 바로 앞에 145m짜리 초고층빌딩이 서있는 풍경은 과연 대한민국이 문화유산을 지키고 세계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리고 문화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서울의 미래상과 맞는지 저는 항상 의심이 됩니다.

저는 정치적 이유가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오세훈 시장이 5선에 도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종묘 앞에 오랫동안 정채되었던 재건축·재개발의 문제를, 예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유인촌 장관께서 그 당시에 합의했던 내용인데 그것을 흔들면서까지 2배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들을 지으려고 하는 고시를 냈다는 것,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유산청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5선 도전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 서울시의 일방적 고시가 세계유산협약을 위협하는 행위라면 정부 차원의 제동과 대응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유산청이 워낙 크지 않은 조직이다 보니까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 있는 개발 관련된 부처들의 논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움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합니다. 저희 지역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국가유산청의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가 국가의 정체성이 담긴

유산을 꼭 지켜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장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1분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유산청의 수장으로서 흔들리지 않은 원칙과 리더십을 보여 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유산협약국으로서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가실지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구요.

장관님께도 부탁드립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유산 보존에 소극적인 국토부 등 타 개발부처들을 직접 설득하고 그리고 국가유산 보존원칙을 중심으로 조율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님께서도 이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짧게라도 말씀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장 허민 종묘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우리나라 처음으로 1995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만큼 종묘는 500년 역사에서 세계 유례 없는 지금까지 종묘제례하고 있다고 인정받는 곳이었구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유산 지역 내에 그리고 세계유산 지역 밖이라도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 그리고 특히 인근지역에 고층건물은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명시했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98년부터 지금까지 15회에 걸쳐 가지고 각종 문화재위원회와 회의를 하면서 서울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23년에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거기에 대한 해당 조문에서 서울시 조례로 삭제하는 과정에서 저희 청에서는 대법원에 여기에 대한 무효 제소를 했고.

23년 7월에는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서울 종묘 근방의 세운상가 쪽에 250 높이로 한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네스코하고 또다시 제출해서 유네스코에서는 25년 4월에 세운지구의 안전하고 포괄적인 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그렇게 요청해 왔고, 금년에도 11월 3일 유네스코에 저희들은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고했는데 거기에서도 바로, 유네스코에서도 그렇게 깊은 유감을 표하고 반드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권고하고 유네스코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왔습니다.

저희 청 입장에서는 그리고 국가유산청의 청장로서는 미래세대에게 저희가 물려줄 것이 정말 세계유산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것은 보존과 개발의 원칙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큰 대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서울의 세계유산을 위해서 그리고 100만 걸쳐, 100만의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최휘영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운동할 시간 좀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진종오 위원 일반 국민들을 보면 또는 직장인들을 보면 보통 이른 아침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또는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데 보통 보면 평균 운동하는 연령층이 40대·50대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운동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어서 운동을 하겠지요.

반면에 학업에 시달리는 학생들은 운동할 시간이 전혀 전무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좋은 법안을 하나 발의했는데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사전에 체육국장하고 타당성 관련해서 여러 번 논의를 했고요. 이 법안은 1학생 1스포츠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초등·중등 학생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고 건강을 위한 개정법률안이고요.

성장기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체력을……

○진종오 위원 예,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건강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교육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진종오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부 사업은, 자료 보시면 학교가 직접적으로 스포츠강사를 고용해서 계약직 또는 기간제로 운영을 하던 방식이고 문제점이 있는데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지다 보니까 지역 교육청별로 예산 여건에 따라서 편차가 있고 참여율 또한 데이터를 보면 고령의 일반 생활체육인 운동하시는 분들보다도 저조한 현실이고요.

다음 화면 또 보여 주세요.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대한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를 함께 연동해서 종목별 전문지도자를 파견하고요.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체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또한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인 건데요.

자료 화면 보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제주도가 자치적으로 이 사업을 가장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보면 교육발전특구사업 예산을 활용해서 시행 중이고 주 2시간 정규수업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시·군·구체육회하고 연계해서 지역 내의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저도 학생들이 1개 이상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종오 위원 그래서 이게 일단은 문체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그리고 정부의, 예산 관련이 꼭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예산은 정부의 의지인 거고 교육부랑 상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 편성이라든지 이런 편성 같은 경우는 장관님의 의지라고 보여지는데 장관님께서 의지가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구체육회가 초·중학교랑 매칭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는 일단 25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걸로 반영이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리고 장관님, 우리 대한민국 스포츠의 고질적인 문제점 알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은퇴선수 진로에 대한 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결이 안 돼 오고 있는 문제인데요.

보면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민노총이 정년을 늘린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년 연장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겠습니까?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혹시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진종오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 확보도 되고 국민 모두가 스포츠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서 우리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1인 1스포츠가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서 나는 문체부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이런 좋은 기획을 실행하고 있다,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런 의지를 좀 굳건하게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잘 이해했습니다.

학교 예술강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진종오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이런 부분들에 많이 좀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저희 위원들도 예산 관련해서는 특히 반론하시는 위원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알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율의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청장님, 종묘 앞마당 앞에 고층빌딩을 세우겠다는 것, 2009년도 이명박 정권 때도 협의를 통해서 고도를 낮춘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떤 재협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일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조계원 위원 김건희가 종묘를 카페로 이용하더니 이제는 오세훈 시장이 종묘를 자신의 선거도구로 이용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데요.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은 명태군 게이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심각한 선거법 위반 문제가 제기되고 그리고 한강버스가 실제로 대중교통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버스로 전락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이 되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악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는 국가유산청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조계원 위원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오세훈 시장은 명백하게……

○국가유산청장 허민 다만 18년을 그렇게 유지해 오다가 23년부터 갑자기 이렇게 변경 고시 내지는 건축물 2배 이상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계원 위원 더구나 재개발·재건축이 고층빌딩으로 올림으로써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오히려 종묘 인근의 재개발·재건축을 방치한 당사자가 오세훈 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벌써 거기서 몇 번의 시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갑자기 고층빌딩을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데 국가유산청장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사수하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이미 작년부터 종로구에서 의견 조율을 했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은 종로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 계속 회유를 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로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법 시행령이 지금 현재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통과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시행령이면 지금 정부에서 바로 발효를 시킬 수 있겠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장관님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조속히 해당 시행령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국가유산을 개별 정치인의 이익에 의해서, 이익 여부에 따라서 마음대로 훼손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조계원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국감에서 지적했던 사안이었는데 지난 9월에 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뇌출혈로 쓰러져 여전히 혼수 상태입니다. 당시 의사는커녕 간호사조차 없었던 상황이었고 사설 구급차에도 의료진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이 중학생 선수는 회복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고 지금도 혼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캠핑장에서 폭우로 일가족 4명 중 3명이 숨지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야영장 사고가 50건이 넘고 사망자도 40여 명이지만 이번에 예산도 보니까 안전 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안전 문제가 이렇게 소홀히 취급되고 있습니까?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사수하겠다, 지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좀 보여 주시지요.

저 사고가 있었고, 다음 화면이요.

예산이 저렇게 감액이 됐어요. 아니, 놀리지는 못할망정 감액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저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전체적인 기조와 위원님 말씀처럼 다릅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캠핑 나간 국민이, 운동장에 나간 우리 국민이 다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예산 문제도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문체부 차원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장관님, 대한체육회가 재정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체육행정의 중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관이 예산 절벽에 내몰려 있습니다. 문체부 관리 감독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제세공과금 등 기본운영비의 63%를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년 약 70억 원 정도를 자체수입으로 부담하면서 체육진흥 사업을 포함해서 연 14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자체편성 운영을 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것이지요. 수입 대부분이 후원 마케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대회 개최 여부에 따라서 예산이 출렁이는 그런 구조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재원 구조에 더해서 전임 41대 집행부 이기홍 전 회장 시절에 예산을 굉장히 방만하게 집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예산 절벽을 가져오게 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2021년 96억 원이던 연간 자체예산 지출이 2023년 228억 원까지 폭증했고요. 반면에 연말 보유자금은 237억 원에서 불과 2년 만에 94억 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26억 원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경영상 실수라기보다는 책임의식 결여와 무리한 이벤트성 사업을 너무 많이 남발했다, 이것이 구조적 적자를 불러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PPT 다음 것 보시면 이기홍 전 회장은 체육인대회, 비전보고회 등 행사 예산을 과거 연 7억 원 수준에서 17억 원 이상으로 늘렸고요. 체육인대회 행사비는 불과 2년 만에 8배 가까이 확대됐습니다. 체육계 사기를 진작한다면서 세 과시성 행사에 치중한 결과 본연의 체육 진흥 예산이 고갈되었지요.

다음 PPT 보시면 보시다시피 5년간 특별보좌역과 자문위원을 계속해서 늘렸습니다. 수당으로만 16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인건비 성격의 예산을 임의로 확대한 이런 정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 보조금마저 줄었습니다. 국회가 지난해에 대한체육회의 공공성과 불안정한 수익구조를 인정했었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 기관운영비를 10억 원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기홍 회장과 문체부 간의 불협화음 때문에 교부가 지연되면서 오히려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2024년 39억 원이던 보조금이 2025년에 28억 원, 내년 정부안 기준으로 18억 원까지 줄어듭니다. 단 2년 사이에 54%나 줄어드는 겁니다.

심지어 이기홍 회장이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를 근거로 약속을 남발한 정황이 있습니다. PPT 보시면 공식적인 이사회 의결이나 내부 심의 절차 없이

회장이 임의 작성한 비공식 문서에 직인을 날인해서 제출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49조는 재정적 또는 업무적 부담을 지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각서는 이러한 절차를 일절 거치지 않았습니다.

사무관리규정 제8조에도 문서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직원이 업무상 작성을 하고 서면 결재가 있어야 성립을 한다, 그리고 시스템에 입력이 돼야 합니다. 제36조 또한 직인 사용 시 직인발급대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이 문서가 어디에서도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거의 문서 위조에 가까운 건데 이렇게 비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한 문서, 인정을 할 수가 없겠지요. 하물며 이렇게 공식적이지 못한 문서를 이유로 문체부가 예산 지원을 거부했다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렇게 보십니까? 조사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기흥 회장이 했던 일들을 지금 현재의 집행부와 그리고 체육인들, 모든 미래세대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현재 집행부가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실천을 할 수 있다면 운영비 보조금을 늘려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후원 마케팅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조로는 체육 진흥을 꿈꿀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안정적인 기능 수행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년도 대한체육회 기관운영 예산 지원 적극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율의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율의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국가유산청장님, 엇그제 대법원에서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관련해서 패소했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김승수 위원 이 대법원 소송과 관련해서 사실상의 행위 주체는 누구입니까, 처분 주체는 누구입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국가유산청에서는 그게 바로 안 된다 해서 TF를 통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문체부가 아니고 국가유산청의 대응이지요. 그리고 국가유산청은 문체부의 외청입니다. 외청은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 게 외청이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런데 그때 상황이……

○김승수 위원 그리고 청장님, 지난 6일 날 대법원 패소가 나고 7일 날 갑자기 기자회견 했는데, 이 처분의 주체는 국가유산청이란 말이지요. 유산청장님이 주도해서 문체부장관 모시고 기자회견 하자 그랬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당일 날 아침에 제1차관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당해 부처인 국가유산청장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문체부 장관이 기자회견 하자고, 그것도 당일 날 아침에 느닷없이 청장한테 전화를 걸어 가지고, 1차관이 전화를 걸어서 중용을 합니다.

문체부 장관이 왜 나섰습니까, 이 사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저는 6일 예결위 전체회의 도중에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진행되는 상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그다음 날 기자회견 메시지를 장관님이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한번 메시지 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입니까?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구를, 정말 공무원이 썼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문구입니다. 이거는 거의 정치적인 문구입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브리핑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장관이 스스로 작성했다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사주를 받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읽는 역할만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청장님, 지금 세종사가 자체가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입니까, 사업지구가?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들이 사업지구라도……

○**김승수 위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밖이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범위 밖에라도……

○**김승수 위원** 그리고 패소한 이유가 뭐니까, 대법원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이고 시행령으로도 보존지역 밖이라도 문화유적에 대해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면 충분히 국가유산청에서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패소를 한 겁니다. 이게 해당 지역 밖이라 하더라도 문화유산을 훼손, 멸실, 수몰시킬 우려가 있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 건물을 올린다고 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장관님,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 개정 등 모든 수단, 방법을 통해서 막는다고요?

장관님, 삼권분립이 뭔지 아십니까? 대법원에서 행정부가 행정 소송이나 정책 소송에 서 졌다고 해 가지고 그걸 법을 개정해서 막겠다는 게 이게 무슨 발상입니까? 지금 아무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범죄행위 사면을 위해 가지고 그런 법안을 진짜 벽돌 찍어 내듯이 찍는다고 하더라도 행정부처의 장관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승수 위원** 제 얘기는, 장관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삼권분립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이 행정처분으로 안 되는 것은 내가 법을 바꿔서라도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겠다 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서울시의……

○**김승수 위원** 그리고요 청장님,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역사 문화재 제대로 보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유산의 보호와 국민의 재산권 사이에서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관련해서. 지금 태릉 같은 경우에도 태릉의 보존지역에서 한예종 일부 건물 옮겨야 되고 또 태릉 스케이트장 그것도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지난해 패소했던 김포 장릉 사태 그 부분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던 것 아닙니까? 조선왕릉 한 30개 왕릉이 동시에 지정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재산권의 다툼이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나라의 좋은 역사 유적들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많이 지정되면 좋지요. 그런 지정되는 과정에서 너무 거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 또 그 이후에, 지정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공교로운 것은 짜맞춘 듯이 문체부 장관이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나서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니깐, 그 며칠 뒤에는 또 총리가 나와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저번에 국정감사 때도, 벌써부터 총리 띄우기에 나선 거 아니냐, 다음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염두에 두고. KTV에서 무려 한 4개월, 5개월 동안 130건 정도의 총리 유튜브만 나옵니다. 한덕수 총리가 4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총리만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김민석 총리 띄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든다는 겁니다.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하세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교흥**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지요?

말씀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방금 위원님께서 저의 기자회견의 과정이 석연치 않더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6일 예결위 전체회의 도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또 허민 청장님께서 그날 답변으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날 예결위 늦게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 건축물이자 자랑스러운 우리 세계문화유산인 종묘가 결코 회복될 수 없는 훼손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문체부장관인 저는 우리가 물려받은 전통문화유산을 소중히 보전해서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배현진 위원 공부를 하고 쓰셨어야지, 공부를. 장관님, 공부를 하고 쓰셨어야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현장으로 가자, 가서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는 말씀을, 기자회견을 하자라고 저는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회견문을 썼고 1차관을 통해서 유선청장님과 함께 동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거기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전에 종묘를 가 보시고 세운상가를 가 보셨어요?

○배현진 위원 장관님, 집에 가서 소감문을 하실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쓰셨어야지, 그게 아니면 선동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 장관이 지난주에……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관께서는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조계원 위원 누가 질의하는 겁니까?

○김승수 위원 실제 지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그동안의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위원장 김교흥 김승수 위원님, 지금 장관에게 김승수 위원님 혼자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의 기회를 드린 건데 얘기를 들어 보고 다음번 자기 질의시간에 또 하시면 되지 이렇게 자꾸만 하면 여당에서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하세요, 하실 말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제가 좀 당황스러운 건 이렇습니다. 이 문제가 왜 정치적으로 해석되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울시 조례 개정을 무효화해 달라고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분은 제 전임인 유인촌 장관님이십니다. 세운상가 부지에 고층건물을 세우려던 서울시 계획안에 보류 결정을 내렸던 거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후세에 있는 그대로 물려줘야 하는 종묘에 대해서 그것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 반대하는 것이 왜 정치적으로 비춰져야 되는지 저는 납득이 잘 가지 않고요. 이런 지금의 분위기가 몹시 당혹스럽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알겠습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하나 여쭙볼게요.

원래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의 조건이 있었지요? 종묘 앞에 하이빌딩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게 있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종묘 유적지구와 그 인근 지역까지 해서 최고 높이를, 최고 건물을……

○배현진 위원 청장님, 없어요.

○위원장 김교흥 잠깐만.

○배현진 위원 종묘 앞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언급을 해 보세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경관입니다. 왜냐하면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까지에서도 고층 건물을 건축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조은희 위원 잘 알고 답하세요.

○위원장 김교흥 그리고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에 질의도 했지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장 김교흥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지금 유네스코에는 저희들이 계속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인근 지역은 서울 전 지역을 다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교흥 뭐라고 답변……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래서 11월 3일 날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고시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이 왔는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권고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조치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러는데 국가유산, 국가문화재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만이 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물려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산을 보존하고 잘 계승시키는 것이 문체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할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자꾸만 정쟁으로 몰고 가거나 이런 거는 결코 후대들에게 또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죄송하지만 제가 답에 대해서……

○김승수 위원 장관의 메시지가 선동이고 정쟁을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배현진 위원 대단히 애석합니다.

○조은희 위원 다음 질의 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교흥 다음번 질의하실 때 하시면 되고……

○국가유산청장 허민 죄송합니다마는 김포 장릉 문제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저희들은……

○조은희 위원 그거는 지금하고 상관 없잖아요.

○배현진 위원 나중에 하세요, 청장님.

○위원장 김교흥 장릉 문제, 얘기하세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지금 종묘 문제하고 여러 가지를 지구별로 다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행동하고 있고요. 유네스코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장릉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그 아파트?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러니까 저희의 말씀은 뭐냐 하면 현재의 세계유산지구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특수성이 있고 경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저희들은 다 따로따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그런데 종묘는 우리나라는 사적지 1호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국가유산청장 허민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1호입니다.

○위원장 김교흥 세계유산 1호잖아요, 1호.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위원장 김교흥 거기에 정전은 더군다나 더 그렇고, 정전.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그러니까 이번에 김건희 때문에 우리가 사적지, 궁궐에 대해서 공부

참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경북공부터 해서 그전에 잘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됐다는……

○배현진 위원 진행하시지요, 위원장님.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이 정쟁을 하고 계세요.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꼴 만들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당해 놓고, 김건희한테 그렇게 당해 놓고!

○조계원 위원 흥분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교흥 왜, 내가 얘기할 때 왜 그렇게 그래요?

○배현진 위원 진행하시지요.

○조은희 위원 정쟁을 하시잖아요.

○위원장 김교흥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의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청장님,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한 시간도 안 돼서 대법원 판결 존중한다 그러셨어요. 청장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문체부장관 쪽지 받고 유감이라 그러고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참 보다 보다 못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 그래서 검찰 사상 처음으로 항소 포기를 해서 7000억 원의 국민에게 돌아갈 돈을 범죄자 입에 꿀꺽 넣어 주더니 그것도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직무대행에 그러더니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문체부장관은 문화유산청장한테 쪽지 넣어서, 그리고 내일 아침에 기자회견에 같이 나와야 된다. 이게 뭐니까? 대법원 판결을 청장님은 위사람 지시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겁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조은희 위원 그리고요 장관님, 장관님은 지금 흥분하셨어요. 표현이요, 제가 가장 논란 표현이 문화유산 능욕을 좌시 못 한다 그래요. 그리고 조금 아까도 회복할 수 없는 훼손이라 그랬는데 김민석 총리 연락받고 그러시는 거예요? 김민석 총리는데요 과거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 청계천도 절대 복원하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가진 사람이셨어요. 지금 청계천은 우리 국민의 자랑 아닙니까? 한강 버스도 안 된다고 그래요. 뭘 하면 다 안 된다 그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거지.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장관님한테 제가 팩트를 좀 물어볼게요.

지금 법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몇 미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지금 법적으로는 100m로 돼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조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몇 미터 떨어져서 짓겠다고 그러니까?

뒤에서 빨리 얘기해 주세요, 크게. 장관이 답변 못 하잖아요. 장관님 써 주는 대로 읽는 사람인데, 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지금 100m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은희 위원 제 답을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협의를……

○조은희 위원 제 답변을 해 주세요. 몇 미터…… 지금 100m인데 서울시는 몇 미터 떨어져서 짓겠다고 합니까?

답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180m라고 합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회복될 수 없는 훼손이라고 막 흥분해서 능욕한다는 표현을 쓰세요?

또 할게요.

양각선 몇 도가 건축이 가능합니까? 경계지 지표면에서 양각 몇 도가 지금 법에 의해서 건축이 가능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능욕한다는 말은 누가 써 줬습니까? 뭘 알고 말씀하시지.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종묘에 가서 보셨습니까?

○조은희 위원 화면 한번 보십시오. 27도로 전체를 할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종로에 가서 서울시가 건축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셨습니까? 경관이 어떻게 망가지고 훼손되는지 보셨습니까?

○조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자의적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을 장관님이 밤새 고민해서 뒤집겠다는 거지요.

보십시오. 다시 한번 다음 화면 봐 주세요.

종묘를 훼손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종묘가 있고 이렇게 60년 된, 막 비가 흐르는 이렇게 종묘 옆에 있는 게 종묘가 훼손되는 겁니까, 아니면 100m 폭의 남산까지 축이 이렇게 생겨서 종묘가 훤히 보이는 게 종묘가 훼손되는 겁니까? 무엇이 이렇게 될…… 서울시처럼 100m 이렇게 해서 180m 떨어져서 그리고 27도 지켜 가지고 하는 게 능욕하는 겁니까?

그다음 화면 좀 보여 주세요.

보십시오. 지금 박원순 시장이 멈춰 놓은 겁니다. 김민석 총리가 멈추고 싶은 겁니다. 장관님은 부화뇌동하시는 거지요.

다음 한번 보세요.

장관님 기자회견 할 때 여기 서 계시는 분들 세운상가 주민들이예요. 세운상가 가 보시기나 했어요? 안 가 봤지요? 가 봤을 리가 없지요.

종묘 옆에 100m 떨어진 건지도 주변에서 쪽지 줘야 알고 180m, 27도 쪽지 줘야 알고 세운상가 가 보지도 않은 사람이……

1분 더 주십시오.

지금 장관이 지방선거…… 부화뇌동해서 문화유산청장 끌고 가서 능욕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문화재에 대해서 뭘 압니까? 지금 자기 감상비평을 밤새도록 써 가지고, 누가 써 줬는지 본인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장관님이예요.

장관님,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고 싶으세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장관이 시민단체도 아

니고 분노해 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서 능욕이라고요! 알면서 능욕이라는 표현을 쓰십시오. 지금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를 알고 계셨어요?

문화계에서 장관님이 문화예술 모른다고 걱정하는 것 지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능욕하는 겁니까? 장관님의 그 태도가 종묘를 능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흥 장관님이나 유산청장님은 세운상가 주변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반대합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아닙니다.

○위원장 김교흥 그것은 아니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제가 세운상가……

○위원장 김교흥 원래가 71.9m로 합의된 거지요, 고층이?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교흥 그것은 해도 좋더라는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원장 김교흥 그러니까 높이가 올라가니까 지금……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종묘를 가리게 되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들이 칠십……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제가 여쭙보는 거예요. 저도……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저도 질문하는데…… 내가 질문하는데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조은희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을 왜 반박하십니까?

○위원장 김교흥 내 질문이 끝나고 하세요. 내 질문이 끝나고 해! 나도 질문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배현진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지금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반문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교흥 나도 질문하잖아요.

○조은희 위원 제 질문을 반박하잖아요!

○위원장 김교흥 반박이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배현진 위원 반박을…… 왜 위원장님이 하십니까?

○위원장 김교흥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이 왜 그 자리에서!

○위원장 김교흥 내가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왜 내 질문하는데 막아!

○조은희 위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거지!

○배현진 위원 위원 질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으시잖아요, 지금. 김승수 위원 건도 그렇고.

○위원장 김교흥 아니, 내가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궁금해서.

○민형배 위원 아니, 위원장이 뭘 지금……

○위원장 김교흥 내 성격 알면서…… 내가 조은희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형배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끝나고 나서.

○조은희 위원 중립을 지키십시오.

○민형배 위원 위원장이 말씀하시고 나서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왜 회의를 이상하게……

○위원장 김교흥 그래서……

○조은희 위원 삿대질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교흥 잠깐만, 잠깐만……

○민형배 위원 무슨 삿대질했어요, 내가! 왜 회의를 난장판으로 몰고 가려고 그래!

○위원장 김교흥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원래 71.9m, 원래 계획대로 되면 큰 문제 아니잖아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습니다. 저희는……

○위원장 김교흥 그리고 세운상가 주변의 허름하고 슬럼가인 이런 부분들도 다 재개발·재건축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 되지 않냐 이런 건데 이게 층고가 올라가면서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들이 건물을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고도를 제한하면서, 그것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다 보면……

○위원장 김교흥 그러면 유네스코에서는 71.9m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건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게 우리가 서울시와 함께 문화재위원회와 협의가 됐고요. 이것은 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다 보면 다소 또 유네스코의 입장도 있을 건데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었고요. 다만 여기서 2배로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시지요.

○위원장 김교흥 질문하셨잖아요.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신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교흥 의사진행발언 드릴게요.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세운상가가요 왜 재개발이 못 됐냐 하면요 20년 동안……

○위원장 김교흥 의사진행발언은 저한테 하는 겁니다.

○조은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보고……

○위원장 김교흥 아니, 저를 보시고 하세요.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못 됐냐면요 20년간 수지가 안 맞아서 못 된 겁니다. 지금 국가유산청처럼 하면 영원히 개발이 못 됩니다.

지금 유산청장은 그것을 알면서도 저렇게 답변을 하는지, 아니면 위원장님 기세에 눌려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팩트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운상가를 재개발을 하려면요 청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70m…… 71.9m지요. 그렇게 하면요 세금이요 1조 5000억 듭니다. 1조 5000억 세금을 들여서 개발을 할 거냐, 아니면 통경 폭을 100m 넓히고, 유네스코도요 세계문화유산 거기에서도 122m는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팩트가 있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반박하시듯이 저렇게 하니까 모르는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제가 어이가 없어서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내가 위원님에 대한 반박은 전혀 안 했어요. 나도 궁금하니까……

○조은희 위원 아니면 다행이고요.

○위원장 김교흥 궁금하니까 여쭙본……

○조은희 위원 그리고 청장은 좀 알고 답하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저렇게 무식한 청장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교흥 아니, 지금 내가……

○양문석 위원 위원장님!

○조은희 위원 재개발,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민형배 위원 재개발을…… 국토부장관이에요?

○위원장 김교흥 무식한…… 재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민형배 위원 문화부장관한테 재개발 얘기를 왜 물어요?

○조은희 위원 지금 물으셨잖아요,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이 안 되냐고 물었는데 된다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김교흥 재개발에 대한……

○조은희 위원 1조 5000억을 세금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양문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좀……

○위원장 김교흥 재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국토부 관계지……

○양문석 위원 저도 좀 시켜 주십시오!

○민형배 위원 재개발이 꼭 고층빌딩만 있습니까?

○조은희 위원 세운상가가……

○민형배 위원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민형배 위원 알고 하세요! 알고 말씀하세요!

○조은희 위원 1조 5000억의 세금을 넣으시려면 하세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김교흥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우리가 국토위예요, 지금? 국토위입니까?

○조은희 위원 국토위를 만드셨잖아요, 위원장님이. 재개발 안 되냐고 물었잖아요!

○위원장 김교흥 재개발……

○조은희 위원 71.9m면 재개발이 되냐 안 되냐……

○위원장 김교흥 재개발이 안 되냐고 물은 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을 71.9m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여쭙봤지요. 왜 말을 그렇게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세요?

○양문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위원장 김교흥 양문석 위원님.

○양문석 위원 조은희 위원한테 질문 좀 해 주세요.

‘수지가 안 맞아서 지금 그대로 하면 개발 못 해’, ‘유산청장 안대로 하면 개발 못 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71.9m 제한하면 1조 5000억이 더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122m까지 된다고 유네스코가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이명박 정부는 안 했고 반대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왜 이것을 제소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끌고 갔을까요? 왜 유인촌 장관과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좋은 것을 반대했을까요? 이것을 좀 질문해 주십시오. 이것을 조은희 위원한테 질문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좋은 걸, 여기서 이렇게 큰소리를 칠 걸 왜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이 엄청난 법정 비용을 물어 가면서 패소시켰는지 질문 좀 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교흥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중요한 게 국가유산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국가유산이 중요한 겁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답변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교흥 국가유산은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끌어진 거고 국가유산을 지키면서 재개발·재건축을 하려니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여기가 마치 국토위처럼 27도로 하니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문화·체육·예술·국가유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교흥 예.

○박정하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양문석 위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조은희 위원께 발언권을 안 주시면 이 건이 계속 오래갈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발언……

○위원장 김교흥 발언권 드려요?

○박정하 위원 답변시간을 좀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그러면 조은희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답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한테 저렇게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는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윤석열 정부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왜 뽑습니까? 김대중 정부부터 지방자치제를 왜 그렇게 단식해서 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겁니다. 그 하는 것을 지금 총리가, 문체부장관이…… 청장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뒤집으려고 나서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정치 덧을 막 입히고 그러니까?

저는 동료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같은 상임위에서, 제가 물론 존경하지만 상임위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유인촌 장관한테 묻든지 이명박 대통령한테 묻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가 하는 것에 대법원에서 합헌이라고 한 것을 왜 정부가 나서서 뒤집냐는 것이 지금 논점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서도 122m는 높이가 괜찮다고 한 것을 왜 총리가 나서서 과장해서 기가 눌린다 그리고 왜 문체부장관이 100m인지 180m인지 27도인지도 모르면서 능욕이라고 그러는 건지, 왜 유산청장은 쪽지 받고 입장을 하루 만에 바꾸는 건지 그것을 묻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왜 이명박·윤석열은 가만히 있었나, 왜 좋은 것을 이제 와서 하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양문석 위원께서는 앞으로 동료 위원에 대해서…… 제가 장관님의 질문은 받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그런데 국가유산청장이 하루 만에 바꾼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혀…… 너무 단정적 표현을 쓰시는 것 같아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혹시 그……

○위원장 김교흥 이제 그만하시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아니, 바로잡을……

○위원장 김교흥 이것 가지고 하면 다음 후발, 후순위의 질의가 안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장님, 아까 조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게 있어서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교흥 뭐지요? 말씀하세요.

○양문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은희 위원의 대답을……

○조은희 위원 하시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그러면 계속할 텐데?

○임오경 위원 두 번 하셨으니까 여기도 두 번 하게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김교흥 그래요, 양문석 위원님 그러면.

○양문석 위원 박정하 간사께서 하지 말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 그만하겠는데요.

정치적 색깔과 정치적 색채를 입히고 정치적 공세를 한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조은희 위원이고요.

그리고 제가 조은희 위원한테 직접 질문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께 질문을 대신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은 입이 뻐뚱어져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조은희 위원 저도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교흥 자, 이제 그만하시지요.

○조은희 위원 아니, 왜 편파적으로 하십니까?

○위원장 김교흥 그만해요, 그만.

○진종오 위원 아니, 주셔야지요.

○조은희 위원 저도 주셔야지요.

○위원장 김교흥 아니, 두 번 드렸잖아요, 여기는 한 번 드린 거고.

○조은희 위원 아니지요. 저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양문석 위원이 질의한 것의 답변인데 제……

○위원장 김교홍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우리 동료 위원끼리 상임위에서 할 때는 동료 위원 이름을 얘기 안 하시는 게 예의예요. 그것은 양문석 위원님께서 상대 위원의 이름을 적시하면서 말씀을 하는 것은 좀 예의에 어긋난다. 그러다 보면 상임위가 진정한 토의 문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구을의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제 질의에 앞서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제가 질의 끝나고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서요.

허민 청장님, 종묘는 누구 겁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국민과 세계인의 것입니다.

○민형배 위원 우리 문화유산 중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500년 역사에 대한 종묘제례는 다른 나라에도 없는 가장 유일한 겁니다.

○민형배 위원 장관님, 발표문에서 종묘를 능욕하지 말라는 표현을 쓰신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종묘……

○민형배 위원 그런 얘기한 적 없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능욕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능욕이라고는 하셨는데 종묘 능욕이라는 표현은 없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종묘는 능욕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발표문도 안 읽어 보고 막 하는데 왜 거기에 그대로 넘어가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말씀은 그렇게……

○민형배 위원 ‘제가 언제 종묘를 능욕한다고 그랬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전에 김건희가 어좌에 앉고 차담회 열고 안방처럼 드나들고, 이게 능욕했다고 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굉장히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안 하세요? 참……

허민 청장님, 종묘 1995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유산이 됐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민형배 위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계유산 지역 내 경관에—‘경관에’입니다—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건축 허가는 없을 것을 보장해라’ 이렇게 나오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도시개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유산을 어떻게 지켜 갈 것인가 때문에 장관님이나 총리님이나 청장님이나 가서 입장 발표를 한 것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그 입장발표문에 아무리 봐도 종묘에 대한 능욕이니 어쩌니 표현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 정확하게 돼 있어요.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 김건희·윤석열이 그래서 나라 망가뜨린 것 아닙니까? 권력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하다가, 그렇게 능욕을 했는데 능욕했다고 지적해 놓은 이 발표문을 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세요?

자, 이 약속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아닙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서 잘못되면, 아까 이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못하면 이것 세계유산 지위를 잃을 수 있다. 이게 K-컬처의 세계적 흐름을 놓고 보면 여기에 반할까봐, 이게 훼손될까봐 염려하는 것 아니에요. 특히 경관 문제 때문에.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건축과 경관인데, 저게 세계유산이 된 게 건축적인 요소와 경관 요소 때문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짚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인사들은 가서 이것을 어떻게든 지켜 내서, 개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적절한 수준에서 해야 된다, 이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하자 그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왜 그렇게 어렵게들 말씀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종묘의 가치를 놓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정말 저는 납득이 좀 안 돼요.

경주에 만약에 고충빌딩이 준비했다면 이번에 APEC 거기서 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국가유산청장 허민 사실은 역사적인 문제 그리고 저희들은 K-컬처하고 세계에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씩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요 유네스코는 이미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렇게 유산영향평가 해 달라고 요청해 왔잖아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리고 그 유산영향평가를 왜 지금 못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반대해서 못 하고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못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영향평가 거쳐서 하면 될 일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도대체 몇 층까지 올라가면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지, 간단한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청장님, 한 가지 더요.

근래에…… 궁능유적본부장님 계신가요, 이재필 본부장님?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민형배 위원 청장님이 말씀하시다가 잘 모르면 같이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대통령비서실에서 3번이나 공문을 보내 가지고 대통령실 주최 국가 주요

행사용 물품 전시 명으로 해서 목적은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겠다 그래 가지고 귀 기관, 즉 궁능유적본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현 용품 5개를 대여해 줍지요? 청장님 잘 모르시는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이재필 본부장님 보세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민형배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빌려 간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째까지 빌려갔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마지막 빌려 갔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25년이요.

○민형배 위원 올해 3월 10일이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습니다.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그렇습니다. 3차 연장……

○민형배 위원 그때 제가 윤석열 파면하자고 단식투쟁하던 날, 시작한 날이었는데, 그런데 3차 승인을, 그러니까 세 번째 빌려간 게 그 해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가서 대통령실에서 가져가서 도대체 어디에다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데 썼는지, 뭐니까? 어디에 썼습니까?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왜 확인이 안 됩니까? 물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 빌려 가서, 대여해서?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저희가 그것은……

○민형배 위원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디 있었어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대통령실이 뭘데, 윤석열·김건희가 뭘데 국가 소유를 가지고 가서 어디다 놔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말이 돼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라를 자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훼손은 안 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부가 대통령실을 궁궐로 꾸미려고 한 것 같아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왜 대통령실에서 주라 그러면 어디다 쓸 건지 어디다 뒀는지 그게 기능이 뭘지 용도를 어떻게 할 건지 어디서 어떻게 이게 훼손이 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계속 빌려줘요?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
○위원장 김교흥 본부장님, 원래 대여하게 돼 있습니까?

○민형배 위원 예, 대여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아니, 대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텐데?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원래 대여해 주는 데는 전주의 뭐지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무형유산원.

○위원장 김교흥 무형유산원 거기만 대여하게 돼 있지 지금 고궁에 전시돼 있는 것을 대여해 준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이게 없잖아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그런데 왜 해 줬어요? 왜 해 줬습니까?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그때……

○위원장 김교흥 그리고 대여해 갔으면, 일반인이 뭘 대여하면 쓰임새, 용도를 적고 대여해 가잖아요, 용도. 그 용도도 없이 달라면 그냥 주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대실 요청해서 공문이 사실은 와서……

○위원장 김교흥 아니, 뭘에 쓰려고 대여해 갔냐고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국가행사에서 전시 목적이라는……

○위원장 김교흥 아니, 전시 목적인데 2년씩이나 연장하면서 전시를 2년씩 해요? 전시를 2년씩 하냐고. 2년 동안 빌려갔잖아요. 그렇지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맞지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위원장 김교흥 그러면 전시 목적인데 2년 동안 전시를 하냐고. 무슨 전시가 그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그냥 달라면 주고 오라면 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민형배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예?

○민형배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중요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아주 고약한 유산을 남겨 놓고 갔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그게 ‘검난’으로 표현이 됩니다. 어제, 오늘 신문을 보면 정말 화가 많이 나요. 정치검사들이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을 불법석방할 때는 즉시항고를 포기했는데 아무 말도 못하던 이 정치검사들이, 이들이 이제 와 가지고 대장동 항소하지 않았다고 검난을 일으키고 있대요, 검찰의 난.

○박정하 위원 그게 문체위하고 뭘 상관있어요?

○민형배 위원 검찰의 난. 아니, 잠깐만 들어 보세요.

그런데 제가요, 이게 어디 가 있는가 봤더니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조금만 들어 보세요. 봐 보세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문화유산을 어떻게 능멸했는지, 능욕했는지 다 보셨잖아요. 국감

기간 동안 내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런데 오세훈 시장도 또 종묘를 가볍게 여겨요, 지금. 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자기 개발계획보다 종묘 보존을 별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요 다 똑같아요. 첫째, 권력을 사유화합니다. 둘째, 국가 품격을 마구잡이 훼손합니다. 세 번째, 공공의 가치를 사사롭게 대해요.

위원장님, 그래서……

○박정하 위원 아니, 그것은 그거고……

○김승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민형배 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의사진행발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의 이런 행태들이 제가 보기에는 문체위에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종묘의 가치를 이렇게 유지해 가고 개발을 할 것은 이렇게 가야 한다고 하는 우리 문체위의 입장을 하나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문체위 명으로.

○배현진 위원 반대합니다.

○민형배 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은 빠지시면 되는 거고.

○김승수 위원 공개 토론하자고 그러잖아요. 공개 토론하면 될 것 아니에요.

○민형배 위원 아니, 공개 토론하고 어찌고는 그쪽에서 지자체장이 알아서 하고요. 저는……

○박정하 위원 그런데 그 입장하고 모두에 말씀하신 검난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된다고요?

○민형배 위원 아니, 그 셋이 똑같다고요. 같은 뿌리라고요, 다.

○배현진 위원 그게 왜 같아요? 저희가 윤석열·김건희 어좌에 앉은 거 잘한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박정하 위원 검난……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

○민형배 위원 같은 뿌리라고요.

○위원장 김교홍 의사진행발언을 정리해 주세요.

○민형배 위원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번 오세훈 시장의 종묘에 대한 훼손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계획을 철회하든지 조정하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니까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문체위에서 입장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정부만 ‘이것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알겠습니다. 여야 간사님들의 협의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울의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국민의힘의 배현진입니다.

장관님, 아까 입장문 얘기를 김승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 입장문을 처음에, 첫날 보고 장관님께서 쓰신 게 아닌 줄 알았어요. 문체나 이런 것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장관님께서 그래도 전직 기자이신데 ‘해피망측하고 하늘을 가린다’, 뭔가 굉장히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쓰신 그 느낌이 나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댁에 가서서 저녁에 되게 고민 끝에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더 굉장히 안

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김민석 총리가 오늘도 기사를 내시고 종묘의 눈을 가린다, 종묘의 바로 코앞에 뭘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네스코의 규정이 어땠고 여태까지의 세계유산 특히 왕릉 40기 등에 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논의가 진행돼 왔는지를 모르는, 이해가 없는 분들은, 일반분들은 그렇게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무부처 장관이지 않아요. 그러면 공부를 하셨어야지요.

사진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2021년에 김포 장릉의 문제를 처음으로 이것 아파트 올라서면 안 된다, 짓기 전에 제안한 사람입니다,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때 김현모 청장께서 이것 때문에 대단히 곤혹스러워하시고 대국민 사과도 3년 내내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아파트 들어섰지요?

유네스코가 말하는 경관, 사이트란 무엇이나? 영상 하나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이것은 전 문화재청장이신 정재숙 청장과 제가 태릉 관련해서, 그 개발 관련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과 비슷한 얘이에요.

바로 앞의 PPT 띄워 주세요.

장릉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 ‘세속적 공간에서 성스러운 공간으로의 위계적인 구조와’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영상에서 이야기했지요? 왕의 릉이든 종묘의 신실이 있는 그 자리든 간에 우리 후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왕이 앉거나 누워서 세상을 보고 다스리고 보살피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 위계와 세속적인 공간을 연결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관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가서 360도 죽 둘러보면서 보는 그런 사이트가 아니라 왕이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그 시선, 정면의 시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네스코는. 이런 얘기 공부해 보셨어요?

다음 보여 주세요. 아니, 문체부에서 올려 주신 사진 보여 주실래요?

제가 문체부에서 여러 사진을 조감도로 만들어서 올린 것을 공유했는데 그중에서 건물을 제일 조그맣게 그린 조감도를 제가 일부러 골랐어요, 장관님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마치 종묘 정전 맨 정면에서 남산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데 실제……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종묘 정전의 정면 뒤에서 보는 남산타워와 세운상가가 보이는 4구역의 방향입니다. 정면에 남산을 가립니까? 아까 김포 장릉처럼 앞에 딱하니 사이트 가리고 있어요? 아니지요? 저희가 정비구역이라는 거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논의하는 이유는 서울 사대문도 그렇고요 경주도 그렇고……

청장님, 이 민원 많으시지요? 국토부 쪽에서는, 지역에서는 개발을 해야겠다 그런데 유산이 나오거나 하면 이거 발굴하다 큰일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심원 구조로 그것을 지자체장과 항상 유산청이 협의하게끔 해 놨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런데 서울은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서 서울 외의 지역은 200m~500m로 그 구간을 설정했지만 서울은 100m로 설정해 놓고 특별히 ‘그들이 지지 않도록’이라

는 양각규정을 만들어 냈습니다. 왜냐? 사대문 안에 특히 사람들이 굉장히 밀집해 사는 좁은 공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0m도 아니고 180m 밖의 종묘 정전 중앙에서는 500m가 넘는 곳에 있는 곳이에요.

저는 이 결정에 대해서 지난 문화재청과 문체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이것을 조정하도록 해 달라고 시도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문체위원으로서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산을 지켜야 하는 그 본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두 분께서 하셔야 될 것은 깜짝 놀랐다고 일기 쓰듯이 밤에 그렇게, 국민들 깜짝 놀라게 같이 글을 써서 하시는 게 아니라 광역단체장이 토론하자고 그러면 같이 토론을 하시고 이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도에는 응답 안 하고 있으시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김민석 총리는 지금 아시다시피 여론조사에도 서울시장 후보니 다음 민주당 당대표 후보니 대권 후보니 이렇게 거론되는 정치인입니다. 지난주 바로 저랑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김건희든…… 영부인이 어좌에 앉아 가지고 종묘를 능멸했지요? 저희 여기 있는 위원들 중에 어느 하나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정치권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문체부가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저희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서운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께서 분명히 기관장의 입장에서 광역단체와 협의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별책 그 정치인, 지금 그분과 나가 가지고 이것이 큰일 났다 하고 국민을 먼저 선동하면 되시겠어요?

청장님!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다음 PPT 일단 보여 주세요.

이게 세운상가 모습입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서울시가 그린 세운상가의 새로 복원할 조감도입니다.

저는요 문화라는 것은 과거의 판자촌, 우리 지금 초가집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도 현재 살아있는 이 공간을 미래 후손들에게 넘겨 주기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의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청계천은 복원을 예전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민주당 구성원들이 반대를 했건 안 했건 지금은 1급수 생물인 쉬리가 살고 시민들이 찾아드는 세계적인 서울의 자랑이 됐는데 그 유산을 만들어서 20년 만에 지금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운상가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들께서 문화를 지금까지 있는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후손들에게 우리가 더 아름다운 문화를 넘겨줄지도 고민하셔야 되는 지점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두 기관장께서는 다시 정쟁이 촉발되지 않도록 그 현장에 다시 나타나지 마십시오.

○국가유산청장 허민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아니요, 제 말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광역단체장과 토론을 하시든 기관장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마는 파리에 가면 높은 건물이 없고요. 그다음에 피라미드 옆에 가면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현진 위원 그것 제가 다 질의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눈앞의 경관을 해쳤기 때문에 장릉의 경우와 똑같은 거예요, 청장님.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그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국가유산청이 해야 될 일입니다.

○위원장 김교흥 아니, 청장님 얘기 좀 들어 보시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왜냐하면 국가유산을 그리고 세계유산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이 저희들의 임무고 미래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현진 위원 아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유네스코에서 이야기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권고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걸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권고를 받으면서 했어야 되는데 왜 APEC 기간에 갑자기 했으며, 그런 것도 있고요……

○배현진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30초만 주십시오, 위원장님.

○국가유산청장 허민 제가 지금 말씀 중에 하나, 조은희 위원님 말씀……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얘기 좀 듣고 합시다.

○배현진 위원 아니요, 말씀 뭔지 알겠어요.

○위원장 김교흥 청장도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배현진 위원 아니, 어차피 써 온 것 읽고 있잖아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아닙니다.

○위원장 김교흥 아니, 써서 읽든……

○국가유산청장 허민 제가 쓴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머릿속의…… 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쓰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참, 왜 그렇게 본인들 얘기만 하고 기관장들 얘기는 안 들으려고 하지.

얘기해 보세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리고 조은희 위원님 말씀이 혹시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을까봐, 아까 122m를 유네스코에서 인정했다 이 말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이거는 잘못하면 국제적으로…… 다시 검토해 볼 사항이라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쪽지를 주고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배현진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은 저도 잘 압니다. 다만 지금 세운상가에 2지구, 4지구
가 있고 그다음에 3지구, 5지구, 6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세운상가 전체를 세계유산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6지구는, 6-3-3 지구는 현재 198m로 사업이 시
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운상가, 저희들이 종묘에서 봤을 때……

여러분, 종묘에서 하월대, 상월대 올라가 보십시오.

○위원장 김교흥 정리를 빨리 해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 경관을 보고 과거 500년 전에 이 집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앞에 그 높이가 계속 스카이라 올라가는 데 대해 저
희들이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교흥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아까 조은희 위원님께도 말씀 못 드렸고 지금 배현진
위원님 질의에도 답을 못 드려서요.

○위원장 김교흥 장관님 답변하고 배현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배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문화유산을 얘기할
때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전의 당부 말씀 저 잊지 않고 있고
요.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감정이 섞인 그런 어휘를 씀으로써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해
석되어지고 또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다만 저는 그때 글을 쓸 때 종묘의 입장에서 바라봤습니다. 종묘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장관으로서 저의 솔직한 심경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
분이 너무 일상적이지가 않고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쓰는 용어로서는 생경했다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개발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세운상가 부지를 그렇게 방치한 거는
종묘의 보존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문화재, 종묘 보존과 개발, 그 개발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
해서 서울시는 저희에게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냥 고시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가졌던 어떤 위기감,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저랑 청장이 가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박정하 위원 그래서 감정적으로 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기자회견을 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반응을 보인 겁니다.

○박정하 위원 그리고 며칠 동안 이 난리가 났는데 이제 와서 잘못됐다 말씀하세요?

○배현진 위원 저 시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교흥 예, 배현진 위원님.

○배현진 위원 장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
지만 서울의 국회의원으로서 저도 제 지역에 이러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관한 것과 개발의 욕구는 항상 충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령
으로 아시겠지만 100m라는 제한구역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100m

밖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상의할 권한이 없었다라고 하고 아마 진행을 했겠지요.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세종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센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본 의원이 법을 내서 지난 군함도에 관한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분쟁을 해결해 주십사 적극적으로 유치해 온 성과물입니다, 지난 국회 때. 이것은 지금과 같은 분쟁이 있을 때도 굉장히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향평가 얘기를 하시니까, 이 문제 등을 다 포함해서 두 분의 기관장께서 지금 서울시장이 토론하자는데, 같이 토의하자는데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위원장의 말씀이시든 아니면 저희 위원회 전체의 명이든 간에 서울시장과 함께 우리 기관장인 문체부장관이 함께 토의하도록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지요? 세계유산센터의 권고를 받아들이든 아니면 이 법령 정비를 해 나가든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관장과 광역단체장이 하면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응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 김교흥 여야 간사끼리 협의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부여·청양군의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도시 공주와 부여, 충남의 알프스 청양 출신 박수현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PPT 사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은 공주시 전경입니다. 아래 숲 부분이 서기 475년에서 538년까지 64년간 웅진 백제 시대의 왕궁지로 추정되는 공산성입니다. 바로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의 지역구이신 한성백제 BC 18년에서 475년까지 수도였다가 바로 475년에 이곳으로 수도가 천도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금강의 건너편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저 시가지, 다음 PPT를 보시면 이렇게 공주시의 관문이고 공주시의 얼굴인 공주종합버스터미널이 바로 금강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터미널이 바로 뒤편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렇게 흙물로 방치가 되어 있어서 공주시의 얼굴이자 자존심 이것에 대한 개발 욕구가, 필요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다시 앞으로 화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공주시는 이렇게 세계유산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바로, 문화유산 보존구역 거리가 얼마나 하면 이곳은 500m입니다. 그런데 저 공주시 버스터미널은 500m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주시는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그 당시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저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가 22대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문체위원이 되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저에게는 실질적이고 양심적인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유산심의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정성스러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 차례 썼습니다. 그

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금강에 놓여 있는 저 철교를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놓여진 다리인데 너무 노후했습니다. 저것은 공주시의 강남과 강북을 잇는 대동맥입니다. 새로운 교량의 건설이 시급했습니다. 안전등급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 옆에 제가 19대 국회의원 때 4차선으로 교량 건설을 시작했는데 바로 그 이후에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가 되면서 저것이 지금은 인도도 없는 2차선으로 붙어 있습니다. 공주시민들의 낙담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합의해야 합니다. 공주시민이 왜 이것이 우리에게, 현세에게 손해가 되는지를 몰라서 저것을 인내하고 받아들였겠습니까? 우리 세대의 손해가 바로 선조 세대에 대한 존중·존경일 수 있고 후배, 우리 후세 세대에 대한 이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이야기한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소멸시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엄청난 관광객의 증가가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공주시에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렇게 과거의 문화유산이 우리 세대에게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종묘의 문제, 이 문제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합의하고 개발과 보존이라고 하는 것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이 모범 사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주시가 세계유산심의위원회와 16년 동안 협의를 하면서 무려 아홉 차례 이상의 그런 심각한 그리고 진지한 토론과 과정을 거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과정, 이 과정이야말로 바로 문화유산을 대하는 현 세대 우리의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너무 지금 서로 조금하게 흥분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둔 그런 입장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를 과거를, 역사를, 문화를 대하는 우리 세대의 의무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 문제를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제가 4차선으로 시작했던 그 다리를 2차선으로, 인도도 없는 2차선으로 줄이고 공주시민은 정말 억울하지만 그러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전체가 가져다주는 공주시에 대한 이익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는 이 수준 높은 공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재산권의 침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유네스코 1호라고 하는 그 엄청난 가치가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전체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것, 같이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를, 유산청은 잘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합의를 이루면서 공주시처럼 이익을 줄이지만 그러나 합의할 수 있는 합의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솔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손슬 위원** 우리 종묘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 그리고 세계적인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물려줘야 하는가,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가를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저는 K-컬처가 확산이 되고 종묘를 찾는 관광객도 많아지고 거기를 찾는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논의가 됐을 때 소극적으로 나오셨다면 오히려 더 질책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역할이자 책무이다 이렇게 봅니다.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신 걸로 아는데요.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 보이거든요. 관련해서 질의 끝나고 답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니까요 문체부 관련 노동자들 민생예산을 꼭 좀 챙기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감 과정에서 공무원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최소한 근속수당은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보시면 이 자료가 노동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그리고 문체부 이렇게 근속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례가 정리된 것입니다. 문체부 안에서도 있기는 한데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이 되고 있어서 이것은 사실 예산을 정확하게 확보를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2026년 예산에 공무원과 생활체육지도자 근속수당 꼭 반영해 주시고 문체부가 공공부문 개선에 모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국감에서 카지노 영업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대책 마련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이 대책 중에 인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이나 홍보캠페인 그리고 노동자 대상 권리보호 교육 이런 걸 진행하려면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문체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된 예산 마련과 사업 시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영화 지원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확대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독립영화 지원 예산이 많이 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 영상생태계 기반 마련 사업을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올해에도 내년에도 전액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년씩 하는 사업이 아니고 원래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터도 잡게 하고 이후에 지원이 더 강화될 것이니 해 보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사업인데 갑자기 끊겨서 지역 영화단체들이 고사 위기고, 지역 간 네트워크가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끊기니까 마이너스 1년 수준이 아니고 마이너스 3년, 마이너스 5년 수준의 부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장기사업이었는데 끊겨 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중앙에서 안정감 있게 가져가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꼭 복원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즉 답변 한번 해 주시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위원님 말씀하신 공무원 근속수당 도입은 지금 적정 소요 예산을 추산하고 있고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영업장 내 가이드 마련하는 부분도 별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규모는 잡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심의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독립영화 쪽도 마찬가지로 특히 전국 영화·영상 특화지원 사업 이 부분은 정부 안에 반영을 말씀하신 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솔 위원 문체부에서도 의지를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역 영상생태계 기반 사업이 되게 잘되고 있었는데 이게 딱 끊기면서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갑의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PPT 좀 띄워 주세요.

PPT 준비 안 됐나요? 그러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개인정보 동의 없이 재단 직원들의 이메일 화면이 국정감사장에 떴습니다. 거기다가 그 메일은 재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국회의원의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명백한 해사행위입니다. 이 자료 유출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사 측에서는 바로 조사 및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이고 노조에서는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점검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지난 국감에서 제가 언론재단에게 공익광고 제조사 선정심사위원회의 문제에 대한, 명단 일부를 공개했고 그리고 재단에서 그러한 것들을 한 번도 재단이 만들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재단이 확인했다, 재단이 만들었다라고 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이메일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재단이 그건 언론재단에서 만든 자료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랬는데 이 글 밑에, 그러니까 국회의원한테 제보한 자, 즉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라 이 이야기거든요, 방금 제가 읽어 드렸던 게. 여기에 대한 댓글을 좀 읽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지부장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노조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 2, ‘정확한 지적입니다.’

댓글 3, ‘매번 회사는 왜 말이 없노. 직원들을 얼마나 개똥으로 알면. 징글징글하다’.

이런 식으로 재단의 노사 Q&A 게시판에서 오고 갔던 내용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읽어 드릴게요.

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공익신고 신고기관이 1. 국회의원입니다.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즉 언론재단 내에서 잘못된 심사위원 풀을 만들고 언론재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만들지 않

있다고 국회의원에게 이야기했다가 그다음에 오고 간 이메일을 공개함으로써 그제서야 언론재단이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인정한 사건에 대해서 언론재단 내부에서 이런 글들이 뜨고 심지어 노조위원장이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각한 부적격 심사위원이 포함됐는지 그리고 언론재단이 어떻게 자정해야 될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는 데 있어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언론재단 이사장, 이게 정상적인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문석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렇습니다. 그런 제보자를 색출한다는 건 어느 개인이, 재단의 어느 개인이……

○**양문석 위원** 재단의 노동조합 지부장이라는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색출하겠다고 합당한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단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가 아니고 누가 제보했는지를 찾아내자는 색출의……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위원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니까 색출의 목소리들이 노사 Q&A에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 이상, 언론재단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 존재의 고민들을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장관,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양문석 위원** 장관님, 문화체육부 2026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개요 98쪽에 보면 언론진흥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운영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아십니까? 100쪽을 보시면요 기금운영비는 운영위원회의 위원회 운영, 각종 평가 등 기금사업 관리를 위한 경상경비로 사용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기금운영비가 이제까지 어떻게 됐는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액 삭감을 해서라도 그동안에 방만하고 오만한 언론재단의 사 측과 노 측의 이 행태들 그리고 위증과 옹호의, 사 측은 위증하고 노 측은 옹호하면서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전액 삭감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영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철저히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두 번 다시 언론재단이 이런 못된 짓을 상습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위원님 말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수영구의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장관님하고 청장님, 어차피 지금 종묘 문제가 논란이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도 답답합니다만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이 지켜야 되느냐의 문제냐 개발이냐 이런 단순 대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걸 구체적으로 상위법과 조례 해석이나 정치 프레임까지 개입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게 과연 그렇게 돼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몇 가지는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과연 이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3조 관련해서는 유산에 영향이 여러 가지 미치면 확장할 수 있다, 아마 거리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서울시가 아마 이 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100m 구역을 설정했고 대법원이 지자체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시가 결국 이 합법적인 조례에 따라서 아마 고시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절차상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라는 엄연한 실체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중앙정부와 어떻게 절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지만 이런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은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점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주장하는 조망권 보호라는 게 법적 근거로 명시된 보존지역—13조 조항 같습니다—개념과는 별개로 현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유산영향평가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시야축을 규제하거나 층고 제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는 한번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종묘가 어떤 세계문화유산의 지위를 갖고 있는지는 굳이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하겠다고 어느 누가 나서겠습니까? 다만 그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정 당국이 고민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개발이나 지켜야 되는 문제나 갈등을 일으킬 사안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고.

굳이 과거 박원순 시장 때 얘기는 제가 새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때도 공중보행로, 1100억 원을 들여서 무용지물이 된 공중보행로 문제를 가지고 그때도 한번 유산청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재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일본 도쿄가 여러 가지 새삼스러운, 우리로서는 좀 배워야 될 모델인 것 같습니다. 과거 메이지 신궁 에도성 주변의 문화재 계획에 당시 도쿄는 엄격한 고도제한을 두었습니다. 일본도 상당히 이런 역사 유적에 대해 엄격한 틀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이후에 문화재보호특구 제도를 개편하면서 문화유산 경관을 유지하되 개발권을 유연하게 부여하는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도쿄역 마루노우치 일대는 100년 된 석조건물을 보존하면서도 인접 고층빌딩 개발을 허용하는 개발권양도제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정해 냈습니다.

그 결과 도심의 문화재 가치는 유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습니다. 문화 보존이 도시 경쟁력, 도시 경쟁력이 서울과 도쿄, 이른바 대한민국의 경쟁도 있겠지만 도시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로 가는 것은 다 인정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행정 당국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도쿄 발전상들을 보면 도쿄에도 상당히 역사 유적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 내는 과정들이 과연 있었느냐는 거지요. 무조건 반대하고 법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싸우는 과정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줄 것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운상가, 저는 술하게 청계천을 많이 다녀 봐서 느끼는, 현장에서 저도 고민이 많았던

지켜보는 입장이었지만 과연 그 부분을 그대로 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근본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쪽을 편들겠다는 게 아니라 문화재와 지역민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의 고민이 없이 종묘만을 얘기하시면 그 종묘가 과연 600년 전의 우리 선조들이 원하는 대답이 될지도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런 절충형 모델을 법에 담을 때입니다. 문화유산법과 세계유산 특별법에 따라서 개발과 보존 관련 내용에 합리적 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아서 현실에 맞는, 현실에 적합한 법을 적용해야 되고 문화유산이 지켜지면서 동시에 서울 같은 대도시가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청계천을 가지고 얘기할 때도, 지금 국무총리까지 종묘 문제에 끼어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23년 전에 청계천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 뭐라고 젊은 시절에 얘기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청계천을 가지고 우리가 도시재생을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생의 틀을 깨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지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청계천이 잘못됐다는 사람, 여든 야든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청계천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더 유지·발전시켜 나갑니다. 과거의 형태가 그대로 가는 게 재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서울시와 구체적인 행정 협의를 하시고 필요하면 토론도 하시고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부터 해 나가셔야 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교흥 예, 말씀하세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장이 된 이후에 좀 바뀌어진 게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매장문화재나 아니면 발굴할 때 너무 많은 부분에서 국민의 원성을 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부분도 시도나 아니면 건설회사와 함께 먼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토론이라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지금까지 20년 동안 유지해 왔는데 왜 갑자기 이것을 변경해 가면서 고시했느냐에 대한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유산평가를 받으시라고 권합니다. 이 말씀을 좀 올리구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세계유산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한 것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정말 세계유산을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콘크리트 건물을 물려줄 것인지를 판단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저도 정 위원님 말씀에 한 마디만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교흥 예,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정 위원님 말씀에 저는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존에 대해서 무작정 보존만 강조할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균형 있는 의사결정들을 이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서울시가 했던 갑작스러운 변경 고시에 대해서 긴급성, 절박

감을 느꼈기 때문인 거지 서울시와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고흥 다음은 강원 원주시갑의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장관님, 조금 전에도 사회적 합의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오늘 현안질의 있기 전에 문체부에 문의를 했더니 세운상가 관련 인근 주민들하고는 문체부도, 문화재청도 한 번도 협의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들은 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문화재청은 하셨어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유산청은……

○박정하 위원 여기 자료는 유산청은 여기에도 없다고 했는데……

○국가유산청장 허민 아닙니다. 지난주도 했고요, 11월 17일도 예정돼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조례 무효 소송과 관련한 인근 주민과 별도 합의는 없었습니다. 담당 부서, 세계유산정책과’.

○국가유산청장 허민 조례 개정 건인 것 같습니다.

○박정하 위원 지금 난리가 되고 있는 게 조례 때문에 이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 그 이전의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아닙니다, 다양하게 지난주도 했고요, 11월 17일도 예정돼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장관님…… 발표문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승수 위원님이 즉 얘기하셨던 이 발표문안, 이게 7일 날 발표하신 거잖아요? 오늘 11일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박정하 위원 조금 전에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 하면서 종묘의 입장에서만 저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유감 표명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 자체가 유감입니다. 며칠 동안 이게 이미 흘러 흘러 정치 이슈화돼 버렸는데 왜 장관님은 여태 그냥 계셨는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일부러 방치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사실관계 몇 가지 좀 확인할게요.

앞서 이 사실을 보고를 받고 깜짝 놀라 밤새 잠을 자지 못해서 아침에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밤새 이것을 정리하셨다고 그랬어요, 종묘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전에 보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여당 위원님들 두 분의 질의가 이런 류가 있었는데 한 위원님 질의에, 유산청장께 질의를 합니다. ‘종묘 보존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여론전을 같이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씀에 청장님께서 대답을 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청장님은 전혀 장관께 같이 종묘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 이런 거 안 하시고 장관께서 먼저 청장께 종묘 현장에 가 보시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하 위원 예?

○국가유산청장 허민 많이 논의도 했고요……

○박정하 위원 이 논의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하고 계셨다고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국가유산청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를 가지고 회의를 매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박정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는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청장님은 여당 위원님의 주문이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는 특별히 말씀을 안 하셨는데 장관께서 밤에 생각해 보니까 종묘의 입장에서 해피망측한 일이고 고작 이것밖에 안 되고 60~70년대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 이런 글을 쓰시고 난 다음에 장관께서 청장께 가자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청장께서는 왜 같이 가 보자는 말씀을 그전에는 안 하셨어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아닙니다. 저희들은 계속 준비하고 있었고요.

○박정하 위원 준비하고 있었는데 장관께 말씀을 못 드린 거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어느 시점에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박정하 위원 조금 이따 답변 주시고요.

장관님, 종묘의 입장에서 쓴 이 입장문에 대해서는 그렇다 쳐요. 그러면 장관님은 장관이예요. 대법원이 판결한 건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가 이것을 반대하면 이게 아니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건가 이런 것 밤새 생각 안 하셨어요?

두 번째,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밑에 참모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장관님 감정대로 이렇게 막 써서 발표해도 되는 그런 자리가 문화부장관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말씀을……

○박정하 위원 제가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앞서도 사회적 합의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관계부서에 내가 뭘 물어봐야겠다, 부처에서 보고를 받고 유산청에서 보고를 받고 서울시하고 협의도 좀 하고 나서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밤새 전혀 안 하신 거예요?

청장께서 굉장히 더 많은 내용을 답변을 주셨는데 아까 198m 허가가 난 6지구…… 6지구 장관님은 어딘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박정하 위원 어딘지 아세요? 다 파악하고 계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박정하 위원 이 글 쓸 때도? 이 글 쓸 때도 알고 계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날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박정하 위원 현장, 이후에 가셨지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예, 1분 더 주십시오.

○박정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장관님께서 너무 가볍게 일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일 만에 그 말씀을 하신 게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렸던 거 정리해서 말씀 주시고, 이 입장도 정리해 주세요.

2006년도 한겨레신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2006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한겨레신문 기사예요. 당시 는 경복궁 관련해서 있었던 거고 당시 문화재청장이 유홍준 현 국중박 관장님이예요. 관 장님이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도 고도제한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였습니다. ‘경복 궁 앞에 세워질 고층건물은 한국일보사 건물로 애초 신청한 내용보다 건물 높이를 1 낮 추고 건물 중 도로로 튀어 나온 부분을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전제하에 건물 높이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양해를 봤다’. 장관님이 이런 자세를 갖고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이렇게 선불리 그냥 감정에 쫓여서 시민단체가 하는 것처럼 급발진해서 5일 동안 이 난리를 칩니까?

앞서 배현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협의하세요. 세운상가 주민들한테 얘기도 들어 보시고 종묘 유산청 관계자 입장도 좀 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정부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게 장관의 옳은 도리입니다. 이렇게 급발진해서 난리 치고 시끄럽게 하는 게 장관님이 하실 일이 아니예요.

마지막, 청장님께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청장님은 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된다는 기자회견 하신 적 있으세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기자회견은 안 하고요, 제가 페이스북에 한 번 쓴 적이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 입장하고 지금하고?

○**국가유산청장 허민** 지금도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세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후쿠시마는 방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때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련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쓴 돈 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에 한 20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거 말고 간접적으로 우리 어민 들 그다음에 수산업자들 피해 다 합치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사회적 비용인데 잘못돼 서 사회를 선동하는 급발진이 어디선가 생기면 그리고 충분한 논의 없이 뭔가 이루어지 면 지금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장관님, 답변 주세요. 청장님도 붙이실 말씀 있으면 말씀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 첫 번째 질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말씀이셨는 데 저는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존중합니다. 대법원은 서울 시의 조례 개정 절차가 적법했다는 것이지 이 개발계획 자체를 인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유산인 종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모와 상의했느냐라는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그날 밤에, 아침에 제가 이 글 을 쓰고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1차관과는 통화를 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분 명한 입장이 필요하다, 절박하다, 지금 긴급하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아무 상의 없이 이 런 고시를 했고 그래서 곧바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사업 인가 신청이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빨리 입장을 발표해야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그러면 하자. 유산청장한테도 연락을 드려라. 그래서 같이 가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쭙봐라’ 이렇게 저는 했었던 거고요.

세 번째,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른 기관이나 참모들한테 물어봤느냐는 거는 아까 두 번째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급하게 뭔가 장관답지 않은, 공인답지 않은 언어를 사용해서 무언가 발표를 했고 그것이 며칠간 정치적인 소용돌이를 일으킨 데 대해서 저 자신도 매우 당혹스러웠고 저도 앞으로 공직자로서 언행을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의 심정은 절박했구요. 여론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서울시가 또 급하게 무언가를 진행하지 못하고 뭔가 같이 상의해 보자라는 오 시장님의 말씀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들었고요. 그런 부분은 나름 제가 그렇게 빨리 대응했기 때문에 나온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앞으로.....

그래도 정부기관들이 이렇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 주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서울시와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잘 들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사실은 어떤 문화적 영향이 미칠 것이 확실하다면 과거 문화재청장과 협의 하에서 해야 된다는 그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한 것이었고요. 대법원 판결은 절차적인 하자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라 마라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후쿠시마 말씀하셨고 저는 급발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미래세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저의 학문적인 소신과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종묘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를 미래세대에 뭘 물려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사람으로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궁능유적본부 보존과장이 지난주에도 만났고 11월 17일도 예정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러면 제가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건물을 왜 못 짓게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했습니다. ‘건물을 못 짓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건물은 지어도 되는데 경관이라는 것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평가를 받아 봐야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하십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임오경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체위 상임위에서 참 건강한 토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의 고성도 오갔지만 우리가 국가유산을, 원형보존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의 유산을 잘 보존하고 또 미래세대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저는 여야 위원님들 간에 고성도 오갔지만 그래도 건강한 토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께 한번 질의할게요.

서울시의 문화재 보호 조례를 보게 되면 문화재에 영향이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 되면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 되면 인허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임오경 위원 이 조례에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넣었나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것은 원래 조례가 아니고……

○임오경 위원 조례에 있는 거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지요.

○임오경 위원 그러면 이거를 폐지할 경우에도 삭제할 경우에도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대법원 판결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장관님과 청장님이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도 두 분이서…… 장관님,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외청과 손을 잡아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외청과 함께 협력해서 일을 도모해 달라고. 지금은 이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좀 더 강하게 나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조례에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해야 한대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서울시는 왜 100m로 해 줬지요? 국가유산은 500m로 반경을 해 놨잖아요, 지방유산은 200m고. 그러면 그 당시에 서울시는 왜 100m로 해 줬을까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서울시 도시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지요? 인구밀집 대도시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임오경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경기도는 1300만을 넘어서 1400만 인구인데 왜 그러면 경기도는 안 풀어 주십니까? 아까 박수현 위원님도 질의하시는데, 지방을 차별하십니까? 균형발전에 의해서 왜 서울시만 특혜를 주고, 서울시는 이러한 특혜를 누렸으면 국가유산청에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고 살아야 된대라고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에도 들어가 있는, 그래서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꼬박꼬박 따박따박 잘 따지십시오. 아니, 인구밀집 대도시라 그래서 특혜까지 줘 가면서, 이거 다른 지방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똑같이 맞추세요, 그러면. 서울시에 사는 사람은 모든 특혜 다 누려야 되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해 주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게 이러한 특혜를, 우리가 그 당시 인구밀집 대도시라고 해서 특혜까지 줬는데 서울시가 이렇게 국가유산청·문체부를 패싱한 거에 있어서 저는 강하게 나가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을 선거용으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거고.

저는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 주민들과 상인들과 더 많은 얘기를 듣고 현장 경청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발을 원합니다. 하지만 절차·과정 무시하는 그런 개발보다는 제대로 된 절차·과정 잘 지켜서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을 잘 이해시켜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짜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서울시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 절차·과정도 다 봤어요. 이 안에는, 서울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획별 건축물 최고 높이 추후 문화재청 협의 및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꼬박꼬박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마지막에는 협의가 없어요? 이것은 패싱당했다고 봅니다.

이거 허민 청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임오경 위원 그래서 최웅천 전 청장을 다시 한번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유인촌 전 장관이랑 다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오셔 가지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당연히 하셔야 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저는 저희가 오늘 참 건강한 토론을 문체위에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 서울시와 지속적이고 건강한 협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피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거 하나를 꼭 짚어가고 싶어요.

사진을 하나 띄워 줘 봐요, 홍범도 영화 관람한 거.

(영상자료를 보며)

8월 13일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독립군’의 시사회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 이종찬 광복회 회장, 배우 조진웅 씨의 모습입니다.

국회의장, 광복회장의 시사회 참석이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우리가 이런 영화 시사회에 참여하면 문제가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렇지 않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체육계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체육회 산하 서울시하키협회가 홍범도 장군 다큐 상영회에 참석한 부회장 유 모씨를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해임 의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영화를 보러 간 사람들 다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해임해야 되는 거네요. 우원식 국회의장님도 해임해야 되고 이종찬 광복회 회장 그리고 지금부터 대한민국 전수조사 다해서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한 모든 정치인들, 단체장들, 공무원들 다 해임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서울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이번 서울시하키협회의 결정이 올림픽 현장과 대한체육회 정관을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 영화도 내 마음대로 내가 보고 싶은 걸 못 보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거 문체부에서 직접 나서서 전수조사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전체 상임위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질의가 끝났고요.

혹시 보충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다 하세요?

보충질의는 3분으로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고양시병의 이기현 위원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잠시 30초만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교홍 예.

○배현진 위원 존경하는 임오경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34조에 관해서 제가 한말씀만 확인을 해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34조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으로 설정하도록 법령이 되어 있고 이 지역 내에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하면 그 하려는 단체장이 문화유산청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게 서울시가 멋대로 한 게 아니라 100m 밖, 그러니까 180m에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진행됐더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나중에 질의시간 때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이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장관님, 며칠 전에 국감이 끝났는데요. 제가 운영위에도 들어가 있어서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APEC을 계기로 우리나라 문화의 국제적인 위상이 크게 높아졌고 그리고 제가 그때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케이팝을 포함한 문화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통령비서실장도 크게 동의를 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공간 광화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케이팝 공연을 개최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이것도 대통령비서실장이 크게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케이팝 공연을 위해서는 공연장이 필요합니다. 야외 폭넓은 공간에서 일부 이벤트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안정적인 대중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강조합니다만 문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5만 석짜리 아레나도 필요하지만 지금 시간이 저희에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7년 정도, 8년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전용이 가능한 공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체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김교홍 위원장, 임오경 간사와 사회교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이기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케이팝의 열기가 이렇게 높아졌고 국가전략산업까지 단계가 올라갔는데도 저희들이 그 공연을 유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각종 공연이 진행되었던 각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들을 공연장으로 전용할 수 있는, 시급하게 전용할 수 있게 문체부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강조하셨던 잔디를 보호할 수 있는 매트도 구입하신다 그랬고 그리고 체육경기장이지만 일시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음향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출연진들을 보호하는 시설이라든지, 무대시설들을 잘 쓸 수 있는 부대적 작업들에 대해서 비용을 투입하면 충분히 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렇게 해서, 이미 있는 시설에 그런 부가적 시설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공연들이 해외로 나가버리잖아요.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레나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창동에도 민간과 지자체가 그리고 경기도 일산에도 민간과 지자체가 크게는 5만 석, 작게는 2만 석 그리고 인천 서구에도 준비 중에 있고요. 지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민간사업이니까 지자체 사업이니까 중앙정부하고는 달라’ 이렇게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비서실장도 같이 온 정책실장도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5만 석 깃쨌다는 대통령 공약이 현실화되는 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간과 지자체가 협업하고 있는 아레나 시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문체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고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그다음 문화체육비서관도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해 주셨거든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로 문체부가 속도감 있는 정책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케이팝의 이 영향이 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잠실종합운동장이라든지 상암월드컵경기장이 공연 시설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까지 와서, 저 경기도 고양까지 와서 5만 명 하는데 5일 동안, 7일 동안 만석이에요. 그만큼 한국의 케이팝에 대한 열망, 공연에 대한 열망들이 있는데 공연장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저는 지어지고 있는 아레나 시설에 대해서 문체부가 전체 점검하고 그리고 예산 지원, 대통령비서실에서도 확약을 했습니다. 아마 동영상 보시거나 문체부도 보고받으셨을 텐데 대통령비서실에서도 그게 급하구나, 대통령이 말씀하신 5만 석 빨리 지으면 좋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 인정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의 각오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다 때 놓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 좀, 주실 말씀이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제대로 된 공연장을 확보하는 건 K-컬처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꼼꼼하게 챙겨서 지금 계획 중인 모든 공사들이 지장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최취영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진종오 위원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공연장 관리 그다음에 안전관리 그리고 예술인 처우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위 내용을 담은 공연법 개정안을 제가 9월 달에 대표발의했고요. 장관님께서서는 직접 챙겨 보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공연예술과에서 저희 의원실 찾아와서 안전관리 체계 그리고 예술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보고받으셨습니까, 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들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이번 연구 내용 보면 300석 이상 공연장으로부터의 방화막 설치 확대 그리고 예술인 보험가입률 제고 방안 그리고 공연장 안전점검 매뉴얼 개선, 저소득 예술인을 위한 퇴직급여 지원체계 구축 등이 연구과제로 들어 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지금 중요한 과제로 이해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빈틈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공연장을 찾아서 안전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예술인들이 금전적인 문제에 시달리지 않고 본인들이 더 활발하게 창작활동 할 수 있게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이번에 연구용역이 한 2억 원 정도 든다고 얘기 들었는데 우리 예산에 꼭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 방향으로 용역이 나오기 전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찾아서 보완하도록 하고요. 용역이 나오면 그 부분은 또 확실하게 챙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관련된 사항이 나오는 대로 본 의원실로 보고 좀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알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종료하고 관련해서 서울시의 조례 삭제 이후에 오세훈 시장은 곧바로 서울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냈지요. 이에 서울시에서 곧바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우려해서 장관님이나 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오세훈 시장은 토론을 해 보자…… 저는 얼마든지 토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좋은 제안이라 생각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모든 주체가 다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향후 세계유산영향평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유네스코의 권고나 영향을 따른다 그 점 동의하에 개발에 충고나 이런 부분도 사

실 검토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유네스코에서 부정하는 경우에는 따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주체가 동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라면, 그런 동의가 있다면 토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 방향으로 얼마든지 토론해서…… 종묘가 단순히 서울시의 재산, 문화유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문화유산입니다. 이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문화 품격을 훼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대응해 주시고요.

같은 문화유산인데 여수에 진남관이라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해체수리한 국보이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진남관에서 새로 준공식이 있었는데 유산청장님도 참가하셨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조계원 위원 안타깝게도 진남관 인근의 국가유산을 찾기 위한 발굴 작업이 있었는데 시기가 오래돼 갖고 일반 건축물들이 있었던 관계로 문화유산들은 발굴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이 남아 있는, 면면이 살아 숨쉬고 있는 진남관을 축으로 한 인근 주변을, 이순신 광장을 비롯한 주변을 호국문화관광 플랫폼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요. 문체부 차원에서도 진남관 호국문화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용역비 한 2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진남관에는 당시…… 진남관을 중심으로 해서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백성의 평안……

1분만 주시지요.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백성의 평안을 기원하며 올린 제례를 바탕으로 전라좌수영과 여수의 역사를 담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화예술 공연인 전라좌수영 독제와 수군 출정식 등 우리가 세계에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유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한류의, 전통문화의 독창적인 볼거리까지 콘텐츠로 만들어 낼 수가 있고 또 이것들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관광객들에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에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마치셨습니까?

○조계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은 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술 위원 영진위 위원장님, 제가 여러 번 질의드렸는데 한국영화성평등센터요. 이제 또 입찰하는 시기가 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손술 위원 입찰계획이 있습니까, 또? 1년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현재로서는 저희가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서 법률적인 관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입찰방식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손솔 위원** 입찰방식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문제 제기를 드렸잖아요. 검토하셨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래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손솔 위원** 저희가 서면으로도 답변을 받았는데 공정성을 위해 입찰했다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답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요.

영화인신문고처럼 사단법인을 하겠다든지 수의계약을 금지할 조건이 없어졌다면 수의계약으로 하겠다든지 서독제처럼 지정 위탁으로 하겠다든지, 방법이 언제쯤 나오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지금 저희가 하여튼 몇 가지 다양한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데……

○**손솔 위원** 언제쯤 알려 주실 수 있으세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올해 중으로 꼭……

○**손솔 위원** 올해 중으로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하여튼 나오는 대로……

○**손솔 위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데 1년마다 입찰하는 방식이 대단히 안 좋다는 데에 동의하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 문제는 저희가 피해자 하는 것에는 최대한으로……

○**손솔 위원** 아니,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센터가 1년마다 바뀌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런 의견들을 저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안에 제대로 답변 주십시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장관님, 이 문제는 장관님도 신경을 써 주세요. 이게 민간 거버넌스로 진짜 잘 만들었던 사례인데 갑자기 입찰방식 되면서 피해자 지원이 1년마다 바뀐다고 하면 피해자가 믿고 뭔가 상담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이 부분은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솔 위원** 제가 국감 때 되게 여러 번 말을 했거든요. 한국영화성평등센터가 1년마다 입찰로 되니까 원래 하던 분들이 안 가고……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이 입찰방식 반드시 바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진흥재단이사장님, 제가 청소용역 관련해서도 저번에 질의드렸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도 이제 하시지 않겠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손솔 위원** 차년도 예산편성 협의 시 상여금 인상에 대해 상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9월 달에 답변하신 걸로 알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손술 위원 그런데 아직 안 됐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손술 위원 내년도에 할 거니까 노사에서 논의를 하는 건 있겠지만 계속 미룰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원청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러겠습니다.

○손술 위원 노동자 처우 개선 예산 확대랑 올해 협의한 내용이 용역업체 바뀌면 또 적용이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불안정한 거거든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인건비 관련해서 차년도 예산.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알겠습니다.

○손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종묘 기자회견 관련해서 보면 문체부 기자회견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지금 문체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말씀한 이 법이 문체부 법입니까, 국가유산청 법입니까?

국가유산청 법이지요. 왜 국가유산청 법을 마음대로 문체부에서 개정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국가유산청장에게도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 줄 것을 지시했다. 국가유산청장이 문체부장관 풀입니까? 지금 법무부장관은 노골적으로 검찰총장한테 외압을 행사하고 지금 국가유산청장에 대해서 문체부장관은 자기 업무도 아닌 법령까지도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장에 취임할 때 제가 국가유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전문성이 없어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겁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국가유산청 직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청장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더 전문성이 없는 문체부장관한테도 저렇게 농락을 당한다……

국가유산청장이 차관이 당일 날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전화로 오라 가라 한다 해서 그렇게 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시급하게, 조급하게 해야 될 사항입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서 발표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위원님, 인식을 공유한 것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문체부 예산이 올해보다 한 1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급증한 부분이 홍보·소통 예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번 국정감사 때, 앞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미 KTV 같은 경우에 KTV 유튜브 채널이 어떻게 보면 마치 김민석 총리의 개인 유튜브 채널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김민석 총리가 등장하는 것이 이게 무슨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언론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이재명 정부의 지적 홍보 또 여론에 대한 검열 의도가 노골화된 그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85%나 증액돼 있고요. 미디어 홍보 34%, KTV 운영이 지금 40% 가까이 증액 됐는데, KTV 운영 예산도 보면 지금 대국민 영상 저작권 개방에 대한 게 60억 신규 예산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대통령의 국내 현장 소통 및 해외순방 영상을 자체 중계 제작하는 데 60억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94년도에 폐지된 대한뉴스 부활하는 겁니까? 이런 예산.

또 그 뒤에 보면 온라인 프로모션 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유튜버 개별 적으로 협업한다 이렇게 해서 8억을 책정했고 인플루언서 100명에 대해서는 또 역시…… 1분만 더 주세요.

인플루언서 100명에 800만 원씩 또 8억을 했습니다. 이걸 뭘니까? 이게 정부광고에 민간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까지 동원해서 일인당 800만 원씩 안겨 가지고 내년 선거 앞두고 정책 홍보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뭘니까?

그리고 또 참 가관인 것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산입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민주당 위원님들이 일제히 이것 삭감하라고 얘기했던 그런 예산입니다. 무슨 검찰 특수활동비와 같이 본인들이 집권 안 할 때는 삭감하라 그리고 집권하니까 늘리라는 게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여기에서 더 심각한 것은 유튜브나 SNS 검열까지도 우려되는 AI 관련되는 데이터 분석 예산이 엄청나게 또 신규로 편성됐다는 겁니다. 무려 하루에 100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긍정·부정 내용을 유형화하겠다는데 이런 로데이터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당히 비판적 언론을 옥죄이는, 비판 댓글에 대해서는 삭제를 지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될 소지의 의혹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장관님, 이 부분, AI 기술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하겠다는 것, 이게 악용될 소지……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그런 소지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걱정과 우려가 없도록 투명하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분석자료를 국회에도 준다고 돼 있습니다만 로데이터까지 같이 공유를 해야지 그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 소위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그리고 아까 위원님 국가유산청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국가 중요정책 수립에 대해서는 장관관이 소속 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는 국가유산청장님과 그동안 상의를 해 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정부조직법상 부처와 외청이 산하기관·소속기관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함부로 청장을 대하거나 오라 가라 하거나 이렇게 안 했습니다,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저는 상의를 했지 오라 가라고 한 것 같진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보면 대단히 정신 없는 한 공간이 있는데요. 장관님, 어디 같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뭣즈 관리하고 있는 곳 같습니다.

○배현진 위원 딱 아시네요. 여기가 300억 기업을 토한 뭣즈를 관리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재단의 직원들 사무실입니다.

이게 왜 이 지경이냐면요 하도 뭣즈가 잘 나가다 보니까 물건을 어디에 적치해 놔야 되는데 보관창고가 없어서 직원들 업무공간에 이렇게 해 놔는데, 사진 한번 계속 띄워 놔 줘 보세요.

이 정도면 직원들이 노동부에다가 장관님 고발해도…… 큰일 날 일이거든요. 이것 지금 업무환경에 대단히 문제가 있지요? 그럴 일은 없어야 되고 이걸 빨리 개선해 주시리라 믿지만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뭣즈 질의에 대해서 현장 방문해서 재단 직원과 업체의 고충 좀 들어 봐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직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직접 듣지는 못했고 만나서 일단 빨리 대책을 한번 해 달라고는 했습니다.

○배현진 위원 장관님께서 업무가 되게 많은데 굳이 방문 안 하셔도 되지만 보고를 통해서라도 고충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건 좀 심각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맞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뿐만 아니라 저 뭣즈, 팔려 나가는 상품들이 화장실 앞이고 어디 재단 사무실 상관없이 다 쌓여 있습니다.

차관님, 좀 심각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재단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창고의 규모가 어떻길래 이런가 살펴봤더니 전체 총 합쳐서 400평 규모입니다. 서울에 네 군데의 물류창고를 대여해서 쓰고 있는데 이 총대여금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

○배현진 위원 1년에 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부처에서 너무 잘나가고 있는 킬러 콘텐츠를 지원하기에는 큰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임차한 4개 창고가 모두 내년 하반기면 임차 만료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12월부터는 재단이 보유하는 창고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건데요. 장관님, 이것 좀 안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배현진 위원 장관님께서 뭣즈 판매를 300조 K-컬처 시대의 동력원으로 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 200억, 올해 300억을 돌파했으니까 연구용역을 해 보니 이 판매고에

따르면 내년 정도에는 1300평 정도 규모, 지금보다 약 네 배 가까운 창고 규모가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예산도 그 정도 더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장관님. 기재부에서 지금 잉여금을 이 재단이 21억 보유한 것 중에 약 4.5억 정도만 쓸 수 있게끔 허가를 해 줬는데……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내년 2월에 결산을 다시 해서, 새로 소득이 들어온 것과 합산을 해서 잉여금을 더 쓸 수 있게끔 하는 그 기회가 있을 텐데요. 장관님, 이건 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체부의 주력 상품이니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영세한 제작 기업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가치사슬을 전부 다 점검해서 그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일단 시급하게 직원들이 저 창고 구석처럼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격려받아야 될 분들이 오히려 더 지금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게……

○배현진 위원 이런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건 제가 옛날 MBC 창고방에 갇혀 있을 때와 진배없이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건 빨리 해결을 시급하게 해 주셔야겠고, 이 몫즈 상품들이 안전하게 잘 보관될 수 있는 공간도 문체부에서 마련해 주셔야겠습니다.

차관님, 신경 써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알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장관님, 왜 아직도 1.07%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더 확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약 들으셨지요? 딱 걸리는 게 뭡니까? ‘어, 저것 우리가 놓쳤는데’.

지금 콘텐츠정책국 예산을 35.8% 늘렸다, 국제문화정책관을 늘렸다,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두 배로 늘려야 된다, 지금보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아예 절대치를 늘려야 된다. 정부 총지출 2%보다는 20조 원으로 가야 된다.

그것 안 되고 지금 전체 예산이 8.1% 늘었는데 문화부 예산이 10.3%밖에 안 늘었다는 건 저는 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은 계속 문화 얘기를 하거든요, K-컬처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도 됩니까? 기재부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만날 때마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안 됩니까? 대통령께 말씀드리세요. 이르세요.

그중에서도 인공지능에 관한 콘텐츠와 R&D 쪽에 대폭 늘려야 된다. 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공모사업, 제발…… 잘못하면 이것 망가진다. 특히 여기 ‘공연 제작·연습 일

정이 행정 절차에 종속되고' 이 대목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에서. BTS가 문화부가 만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는 못 했는데요. 문화부 쪽에서 손을 대니까 민간에서 잘나가던 게 망가져요. 지금 민간에서 잘 키우고 있는 것들을, 문화부가 뒷받침해 줘야 될 아이тем들을 빨리빨리 찾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K-컬처, 문화강국으로 된 건 문화부 역량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문화부도 뒷받침을 많이 하셨겠지만 민간의 역량이었잖아요. 그걸 뒷받침하는 쪽으로 예산을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저는 문체부가 리셋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말씀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민형배 위원 문화재정 확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방식, 특히 전통문화의 힘을 키우는 것, 그게 K-컬처의 힘이었으니까. K-컬처가 그냥 문화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엔진이라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계속 강조하고.

그러면 장관님께서 진짜 예산 투쟁을 세계 하셔 가지고 정부 예산 방향을 아예 바꿔야 됩니다, 지금. 그래야 될 영역이 몇 군데 있는데, 중점 투자해야 될 영역이 몇 군데 있는데 문화 쪽이 그런 영역 중의 하나고 문화 쪽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AI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이런 게 아주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투쟁을 앞으로 계속해야 되고 이번 예산 국회, 예산 국면에서 이걸 좀 세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CT R&D 쪽은 정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통문화 말씀드렸는데 보호해야 될 무형유산들, 유·무형유산들 이것, 그리고 제 지역적인 얘기이기는 합니까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문체부 예산 늘려야 된다는, 다시 리셋의 개념으로 늘려야 된다는 말씀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요. 위원님 주문의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이번에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뛰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싸움을 제대로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장관님, 아까 언행에 주의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시면서도 본인의 충동적 행동으로 주의 환기를 시켰다고 자화자찬을 하신 것 같아요. 장관님은 기자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고 시민단체도 아닙니다. 앞으로 국무위원으로서 지켜야 할 처신과 자세 각별히 유념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리고 장관님, 지금 서울시가 문화유산을 지킬 의지가 없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조은희 위원 장관님이 잘못 아시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화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후보 시절에 청계천 개발은 최악이다라고 했던 청계천 개발사업의 비포·애프터입니다. 장관이 그때 당시 반대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저는 이 사례와 제가 말씀드리는 종묘 사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쭙지 않습니까? 어느 게 낫습니까? 비포가 낫습니까, 애프터가 낫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후가 낫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그리고 홍인지문 뒤 낙산 사례도 보면 녹지를 조성하면서 오히려 홍인지문이 더 살아났습니다. 창덕궁 앞, 경복궁 앞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시가 문화유산을 돋보이려는 재구조화 시도를 수차례 해 왔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 주세요.

도시재생사업이라면서 보존사업들 중에 아쉬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도시재생 1호로 내세웠던 창신·송인지구 결과는 1000억 들었는데 결국은, 결과는 벽화 그리기뿐이었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주민들만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지요.

세운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님이 세운상가를 직접 둘러보시고 그렇게…… 지금 울분을 가지시려면 세운상가를 한번 보십시오.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낙후된 지역, 주민들 피해를 그대로 두자는 겁니까?

또 일부에서는 독일 드레스덴 엘베계곡 사례를 들면서 유네스코 등재가 취소될 수도 있다 공포 마케팅을 합니다.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엘베계곡 사례는 유산구역 안에서 계곡 경관을 직접 훼손했습니다.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구역 밖의 사업입니다. 아닙니까? 밖의 사업이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건 저희들이……

○조은희 위원 지금 장관한테 물었는데 청장이 나섭니까?

안의 사업입니까, 밖의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

○조은희 위원 밖의 사업입니다. 모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관님은 사업비 1조 5000억이 더 들어가는 것도 모르시고 100m 거리라는 것도 모르시고 서울시는 180m 넘어서 짓는 것도 모르셨고 양각이 27도라는 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180m부터 높이가 100m, 차근차근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경관이 보기 좋게요. 그런 걸 좀 유념하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위원님,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드리는 이유는요 그 질문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가리는데, 종묘의 경관을 해치는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조은희 위원 그게 어떻게 하늘을 가리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저는 개발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같은 관점에서 어떻게 K-컬처를 도약시키겠다는 건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본도 모르면서 대법원 판례를 뒤집으려고 하시면 손바닥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늘을 가리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판례 뒤집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존중하고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저희는 대책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조은희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선동하지 마시고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조은희 위원 하십시오.

○국가유산청장 허민 사실 종묘는 지금 지정구역이 있고요. 종묘 지정구역에서 100m까지는, 서울시내 100m까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100m고 제주도는 500m고 다른 지역은 250m, 500m까지예요. 그런데 지자체장은 이것을 가지고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에 조례 지정해야 되고 그리고 100m 넘고 500m 넘더라도 반드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에 대한 법입니다.

○조은희 위원 추가질의, 저기 엉터리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반박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
○민형배 위원 조은희 위원님 문화관광비서관 출신이면서 그렇게……

○위원장대리 임오경 지금 의사진행발언 1분 주겠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잠깐만요.

○민형배 위원 아니에요.

○조은희 위원 인신공격하지 마세요. 양문석 위원으로 충분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지금 의사진행발언 1분……

저희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조은희 위원 지금 문화재청장께서요 굉장히 왜곡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님. 왜냐하면요 영향평가라는 부분도 100m 이내에서 영향평가를 받는 거고 180m 밑에 있는 건 영향평가 대상이 아닌데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고, 지금도……

박수현 위원님의 공주와 경기도와 인구밀도에 차이가 있잖아요. 서울시와 같은 국제도시인 그래서 100m의 거리를 과거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합의를 한 건데 지금 와서 대법원 판례가 있고 나서 저렇게 뒤집어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요 추가 청문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6년부터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법은 그 범위 밖이라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 범위가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전체를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세운상가는 3지구, 5지구까지 다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그 말씀을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은희 위원 문화유산청장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자기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의하지는 못해도요. 그렇지만 총리나 문체부장관이 저렇게 하시는 건 자기 직분하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자기 직분에서 그런 주장은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틀려도. 그 부분은 다음에 또 가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우금치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사업 연구용역에 관한 예산 관련으로 국가유산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금치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꼭 해야 되는데요. 연구용역이 2017년에 마지막으로 나온 뒤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을 시간과 환경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문제를 빨리 다시 시작하자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체부 소관법 중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2023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 의미가 관련 예산 사업으로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성역화라는 단어를 썼지만 공식적인 사업 명칭은 문체부 사업은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문체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전북 고창과 부안 두 곳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체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요건상 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 매입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금치의 경우에는 1994년 국가유산 사적 지정 이래 토지 매입이 너무 더딤니다. 당장 내년에 기념관 건립 연구용역 예산조차도 요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지요, 토지 매입이 너무 더디기 때문에. 그래서 우금치 전적지 총 면적 69만 8297㎡ 중에서 매입부지가 끝난 것은 44필지, 16만 2878㎡, 23.3%에 불과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문체부와 국가유산청 두 기관이 관련 연구용역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인데 말씀드린 상황상 1차로 국가유산청장에게 우금치 전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반영 1억 원을 반드시 해 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의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토지 매입 예산 약 24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우금치가 사적 지정된 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년으로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토지 매입이 전체 대상지 중의 말씀드린 대로 20%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토지 매입이 안 되니까 문체부의 기념관 건립 사업도 역시 용역 예산 신청도 지금 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1894년 이렇게 되었는데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민초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땅의 민주주의로 이어졌던 아주 위대한 우리의 유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이 어떤 이념적 잣대에 의해서 사실은 그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신고조차도 대놓고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숨어 살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한 지역에서 그 민초들 한 5만여 명이 일본군에 의해서 몰살이 되었다는 아픈 역사를 생각할 때 이 후손, 우리들이 21세기 잘 사는 경제 10대 대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그렇게 숨어 살아야 되는…… 이 숨은 역사를 반드시 양지로 드러내고 그 정신을 선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박수현 위원 이런 측면에서 확실하게 담대하게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우금치는 동학농민 역사상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정비계획을 설립하고 그 안에 토지 매입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람료라든가 방문센터 같은 경우는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장관님, 지난 9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 올해 예산으로 아마 47억 배정이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운영 방향에 대해서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씨가 이런 얘기한 거는 제가 높이 삽니다. ‘본인 진보진영도 보수진영도 아니고 박진영’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고 강조했는데 일단 이거는 지켜보겠습니다. 박진영답게 자기 얘기를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47억이나 배정하는 산출 근거를 볼 때 예산서 어디에도 세부 사업내역이나 산출 근거 이게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내역을 이렇게 그동안 짜왔는지의심스러운 정도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한국 문화의 지속적 확산, K-컬처에 상당히 모든 부분이…… 저희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 포함돼 있는 위원 명단만 보면, 정부위원을 포함한 민간위원을 보면 우리나라 모든 K-컬처 대표적 CEO들이 거의 다 망라가 되어 있지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 기구가 어떻게 운영될지 전 국민들이 아마 지켜볼 겁니다.

(임오경 간사, 김교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예산에 구성된 내역 자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지적을 해 주시고.

이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분명히 출범했습니다. 자문기능 중심이라면, 자문이라는 것하고 실제 행사기구는 엄연히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혼동이 돼 있다는 것은 예산 내역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돼 있는 부분까지도 과연 제대로 문체부가 짚고 있는지, 이것 자체가 화려한 퍼포먼스만 해서 그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됩니다.

또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어차피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금 현재 JYP엔터테인먼트의 공식적으로 최고 CEO 아닙니까? 의사결정자인데 예산집행 과정에서 만약에 공동사업 과정에 이 부분이 연관되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박진영 공동위원장 본인도 이 부분은 자기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그냥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가 투입되는 대표적인 사업기구라고 할 때 회계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나올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업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비가 투입되는 엄연한 K-컬처를 위한 전진기지로 지금 잡아놓으신 거지요.

행사기획기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 시상식, 글로벌 축제, K-컬처 플래그십 스토어 조성을 한다, 사실상 사업집행기관 수준의 프로젝트를 공공연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상당한 재원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지요. 이게 47억 가지고도 안 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 얘기한 이 정도 프로젝트만 따져봐도 과연 이 정도 규모가 되겠느냐, 그냥 허울만 이렇게 던지는 거는 아니어야 될 텐데 한 1년 정도는 지켜보겠습니다.

위원회 운영비는 28억을 배정하고 위원회 행사와 포럼에는 각각 4억으로 8억 정도 책정합니다. 이렇게 포부는 큼니다. 이 정부가 출범할 때 K-컬처를 얘기할 때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구성에 가장 공을 들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분배를 보니까 결국 사무실 운영에 절반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혹시 돈이 없으니까 추경에 추가하겠다 또 그 얘기 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구 자체가 구성되는 게 약간의 급발진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제대로 예산 문제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장관님도 공동위원장답게 정밀하게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이런 기구가 처음 구성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 또는 기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잘 운영해서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자문기구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같이 토론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그 사업들을 다 직접 추진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사업들의 예산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통해서 집행되는 거는 아니고요. 어떤 거는 정부 쪽에서 해야 되는 일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민간 쪽에서 집행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갑의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장관님, 보도 보니까 아마 조만간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박정하 위원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를 안 썼을 경우를 대비해서 청와대 국가공간으로 조성하고 이런 목적으로 설립된 청와대재단은 어떻게 되는 거고, 재단 직원들의 고용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주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두 번째는 앞서 김승수 위원님이 보여 주셨던 7일 자 보도자료 여기 보면 종묘 때문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글쎄요, 이게 정부에서 법령 개정하는 건지 국회에서 법령 개정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당만 가지고도 전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모든 조치를 다 취하라고 문화재청장께 지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즉 말씀 주셨는데 향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장관님 말씀을, 분명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 주신 답변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 이런 것 등등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정리해 나갈 것인지 말씀을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답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청와대재단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올해 안에 이전하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청와대로 이전하더라도 청와대의 일부 공간은 국민들에게 개방해서 열린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동안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와대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실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어떤 역할들이 찾아진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금년 내에 이전하면 당장 다음 달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돼서요. 결정이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고 저는 당시에 느꼈었고 그래서 나름 여론화를 하고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서 그다음에 어떤 방법들을 찾아가고 모색해야 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긴급하게 움직였었고요.

오늘 위원님들 말씀들도 들으면서 여러 측면에서 고민들이 그동안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저도 나름대로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어떤 특정법을 어떻게 건드려서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구체안이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방법들을 검토해서 무언가 찾아보겠다라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제시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가지고 있는 내부의 시행령에 이 조항을 넣으면 됩니까라는 말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꺼내 놓고 같이 중의를 모으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시가 저희와 충분한 협의 없이 마구 사업을 진행 시킬까 봐에 대한 어떤 걱정이 컸던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같이 협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보존과 개발이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

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아까 답변을 듣다 보니까 청장님께서 반드시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임오경 위원 저도 앞서 질의를 할 때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화유산법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종묘로부터 100m, 서울시 어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180m라고 그래서 고도 용적률을 마음대로 그렇게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임오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가 반경 180m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180m 반경에서는 100층짜리 건물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을 서울시가 패싱한 것에 있어서 서울시하고 강하게 부딪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과 청장님이 외청과 함께 협업하시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앞장서 주시는 것에 있어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게 건강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멈추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와대재단 관련해서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의 복귀가 공식화되었고 올해 안으로 집무실 이전이 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다면 재단 유지 필요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 부분은 지금 대통령실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만약 기능상에……

○임오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청와대재단 이사장이 국감에도 나오지 않고 청와대재단은 완전 비밀로, 시크릿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청와대 개방 그리고 관람,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경호처로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저는 재단이 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재단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해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 올라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올라가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이 부분은 지금 청와대 이전 후에 청와대 열린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되기 전에 저희가 일단 올렸던 예산이고

요. 이 부분은 국회 심의하시는 과정에 저희도 빨리 대통령실과 협의를 마쳐서 청와대 재단이 앞으로 어떤 기능을 할지, 아예 기능이 없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상의드리고 관련 예산 부분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예산소위에 있어서 좀 더 섬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앞서 제가 질의한 것에 있어서……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김교흥 1분 더 주세요.

○임오경 위원 영화 한 편을 보고 해임을 당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 건국전쟁 영화를 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또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가지 더 장관님, 제가 물어볼게요.

서울시하키협회 회장은요 용품 업체를 하는 사람이라요. 그러면 하키 용품을, 그런 스포츠 용품을 파는 분이 회장으로 오신 것은, 이것은 괜찮은 건가요? 이것 이해충돌 아닐까요? 오히려 위험성이 있다면 이게 더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영화 한 편 보러 갔다고 해임을 당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너무나 심각성이 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기관장님들 다 지지 선언도 하시고 다 하셨지요? 중립성 위반이네요, 다?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드시 밝혀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관련해서도 정부안에 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이제 시작된 건 알고 있어요. 그래도 내년도 예산안에 꼼꼼하게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서 올려 주셔야지 저는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심의하기 전까지 이러한 예산안을 제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를 꼼꼼하게 작성하셔서 예산심의 때 반드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상임위에서 언성이 높아졌는데요. 하여간 이 종묘는 조선왕실의 역사를 상징하는 소중한 국가유산이자 유네스코가 인정한 인류 공동의 세계유산입니다. 이번 종묘 사안은 단순히 개발과 보존, 정연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개발과 보존의 대립 구조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장관님이나 청장님께서 이것을 서울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역의 발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 가지고 정쟁화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후대를 생각하면서 문화유산을 지키면서 또 종로 그 지역 주변의 여러 가지 안 좋은 개발 문제 이런 것들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이젠 뭘 진행하려고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십니까?

○조은희 위원 마치시려고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교홍 말씀하세요.

○조은희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양문석 위원께서 저를 상대로 이것, 이것, 이것, 이것,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다음 회의 때 사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제가 앞으로도 양문석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이기현 위원님이 하신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물어 주십시오’ 이렇게 꼭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문석 위원님께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다음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셨으면 제가 직접 말씀드렸을 텐데요.

○위원장 김교홍 그래서 제가 ‘예의가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조은희 위원 그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는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고요.

○위원장 김교홍 위원장으로서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 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저기인데……

○조은희 위원 본인이 무례를 하셨으니까 그 무례에 대해서 저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해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 잘 중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서면질의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하세요.

○김승수 위원 원래 예산 종합정책질의 할 때 회의 종료 시점까지 서면질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서면질의 제출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연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렇게 하시지요.

진작 준비하세요, 김승수 위원님.

자, 이상으로……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양문석 위원님 사과……

○위원장 김교홍 얘기하세요.

○**임오경 위원** 제가 21대, 22대 계속 여기 문체위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야 위원님들 간에서 상대 위원님에 관련된 고성과 그리고 그 질의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지금 조은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것은 여당의 문제만이 아니고 야당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선 안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정도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저도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인신공격한 것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조은희 위원** 아닙니다. 그러시면 저는 앞으로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를 모욕하시는 겁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의사진행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제가 알아서 잘 정리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서 잘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토론을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 위원 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적하면서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국회 활동을 이렇게 해 보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 들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대체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목요일과 14일 금요일에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11월 17일 월요일에는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은 일정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박수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진종오 위원님, 이기현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 정연욱 위원님, 손술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양문석 위원님, 박정하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김교홍 위원 이렇게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휘영 장관, 허민 청장 등 소관 부처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김교홍 김승수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박정하 배현진 손 솔 양문석 이기현
임오경 정연욱 조계원 조은희 진종오

○청가 위원(1인)

김윤덕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김용규
입법심의관 김충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제1차관 김영수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문화예술정책실장 이정우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김재현
종무실장 김도형
국민소통실장 공형식
대변인 송윤석
정책기획관 이정은
문화정책관 이정미
예술정책관 이용신
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소통정책관 직무대리 이영호
소통지원관 정태경
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저작권국장 정향미
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체육국장 이선영
관광정책국장 직무대리 박미경
체육협력관 직무대리 이혜림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한상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효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하형주
국가유산청
청장 허민
차장 최보근
기획조정관 황권순
유산정책국장 이은복
자연유산국장 김동대
무형유산국장 윤순호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궁능유적본부
본부장 이재필

【보고사항】

○의안 회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 9. 24.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31)

이상 2건 9월 25일 회부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5.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1)

9월 26일 회부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6.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9)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322)

이상 2건 9월 29일 회부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3)

10월 13일 회부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6)

10월 14일 회부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5.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5)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0. 15.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3)

이상 2건 10월 16일 회부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3.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3)

10월 24일 회부됨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0. 27.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2)

10월 28일 회부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2)

10월 29일 회부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9.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3)

10월 30일 회부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3.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3.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7)

이상 2건 11월 4일 회부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5.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5.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6)

이상 2건 11월 6일 회부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8)

11월 7일 회부됨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1. 7.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1)

이상 4건 11월 10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0. 2. 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1)

10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0. 10.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1)

10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0. 22.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3)

10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0. 30.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2)

10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31.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7)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0. 31.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8)

이상 2건 11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7.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2)

11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예비심사기간 통보

2026년도 예산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1)

이상 2건 10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기간이 11월 6일 09시 30분까지로 확정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음

○계획서 송부

2025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

(2025. 9. 25. 정부 제출)

9월 25일 송부됨

○보고서 제출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보고

(2025. 10. 1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1호	2025. 09. 26.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12호	2025. 10. 02.	국가유산청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시행규칙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4호	2025. 10. 02.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771호	2025. 09. 23.	국가유산청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782호	2025. 09. 25.	문화체육관광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787호	2025. 09. 30.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800호	2025. 09. 30.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35811호	2025. 10. 01.	국가유산청

입시회의록